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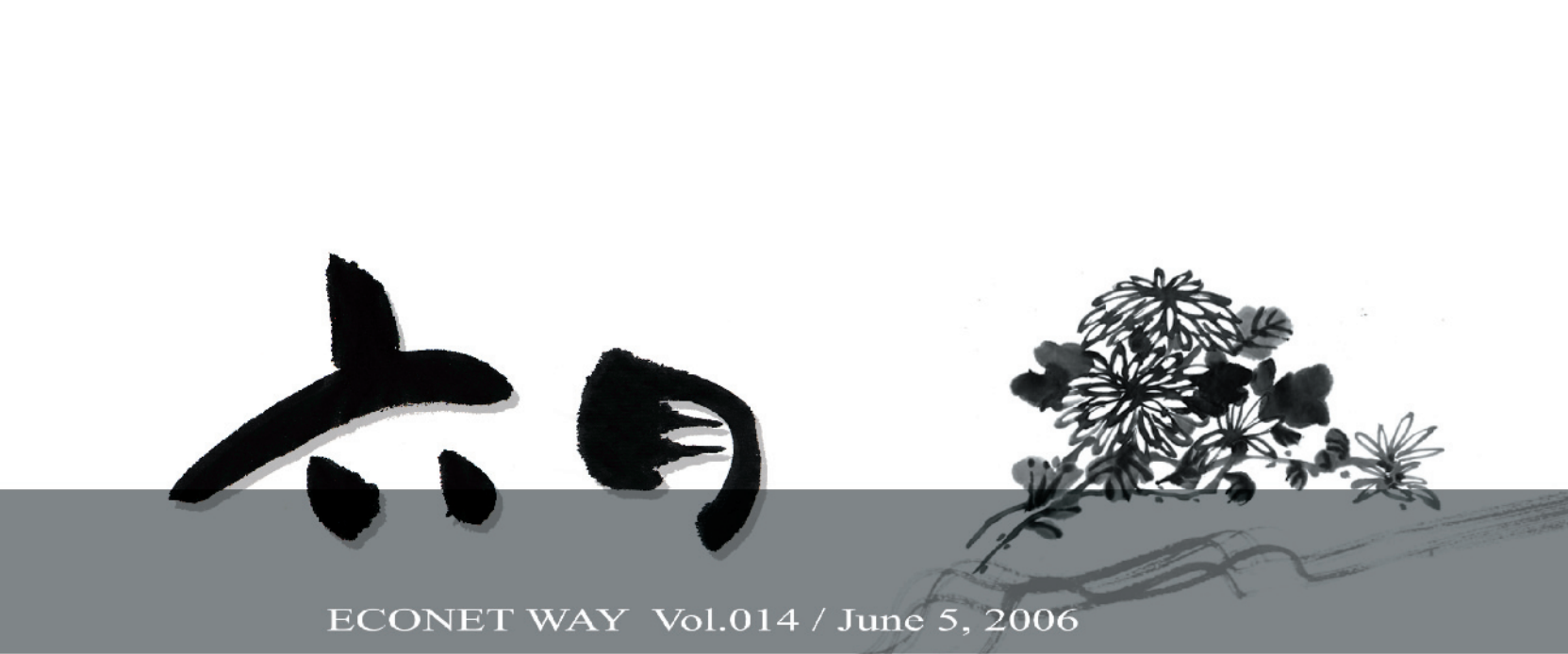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14 / June 5, 2006



농장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게

Farm to Family



발행인 이병훈 / 발행처 (주)남양 /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 편집 오경아 / 편집·디자인 Intercube Design / 인쇄 정광인쇄(주)
Publisher Bill Lee /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yang Company / Editor Kyeongah Oh
Editing & design by Intercube Design /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Co., Ltd

ECONET Special

- 02 > 특집기사 에코넷의 차별화
- 06 > 글로벌 비즈니스 3사 연구자회의
- 10 > 테마캠페인 서번트 리더십 테마칼럼
- 14 > 스페셜 이슈 에코네시안에게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ECONETIAN

- 16 > 특집기사 유니베라 한국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 20 > 고고 우리부서 유니베라 라이프 사이언스 고객관리팀
- 28 > 우리집으로의 초대 유니베라 대구경북팀 김윤식 주임
- 32 > 칭찬릴레이 아홉번째 주인공 (주)유니젠 신혜경 대리
- 34 > 칭찬릴레이 여덟번째 주인공 미국 유니젠 줄리아 푸
- 38 > 특집기사 독일 촬영팀과의 어드벤처
- 42 > 특집기사 에코네시안 하나되기 (블루다이아몬드가 이스트 에코네시안을 만났을 때)

Culture & Life

- 46 > 신제품 식물성분 관절건강기능식품 ‘리제니케어·K’
- 50 > 명소소개 시애틀에 오시거든 여기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 52 > 포토에세이 에코넷 EAST, WEST 친선도모 현장포착

Info

- 54 > 헤드라인 뉴스 1 에코넷 30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 56 > 헤드라인 뉴스 2 유니베라 30주년 기념 행사
- 60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ECONETIAN 신입사원 소개 • ECONETIAN 경조사 안내 • ECONETIAN 생일자 소개
- 74 > 사진콘테스트 4월호 사진 당첨자 & 6월호 사진 응모 안내
- 78 > 6월호 퀴즈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안내
- 80 >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ECONET Special

- 04 > Features Differentiating ECONET
- 08 > Global Business ECONET Research & Development Group East
- 12 > Theme Campaign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 ECONETIAN
- 18 > Features Preparing for the Launch of Univera Korea
- 24 > All About Our Team Univera Life Sciences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 30 > Welcome to My Home Yoonshik Kim, Supervisor,
Daegu-Gyeongbuk Team, Univera Korea
- 33 > A Relay of Praises Ninth Runner Hyekyoung Shin, Assistant Manager, Unigen Korea
- 36 > A Relay of Praises Eighth Runner Julia Foo, Unigen USA
- 40 > Features Adventure with the Crew from Germany
- 44 > Features ECONETIANs coming together
(When Blue Diamonds met East ECONETIANs)

Culture & Life

- 48 > New Product ReginiCARE ·K, a phyto-sourced functional health product for joint health
- 51 > Famous Place Must-to-see places in Seattle!
- 53 > Photo Essay Promoting Friendly Ties between ECONET East and West

Info

- 54 > Headline News 1 ECONET’S 30th Anniversary Hanmaeum Sports Day
- 58 > Headline News 2 Univera Korea’s 30th Anniversary Event
- 60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ECONETIAN New Hires
• ECONETIA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ECONETIAN Birthdays
- 74 > Photo Contest Winners of the April Contest and the theme for the June Photo Contest
- 78 > June Quiz and the Winners of the April Contest
- 80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에코넷의 차별화

‘타인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신에게 위대한 축복이 돌아오며,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어야 한다.’

글 -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 부회장 겸 CEO 데렉 홀 / 미국



왼쪽부터 스티븐 처니스케, 이병훈 총판사장, 스튜어트 오킵트리, 데렉 홀 / From the Left, Stephen Cherniske, Bill Lee, Stuart Ochiltree, Derek Hall

지난 30년 동안 설립된 기업을 조사해보면 처음에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생겨났는지에 대해 놀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 몇 개의 기업이 무너졌고 이에 문을 닫았는가 하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의 특징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 4월에 에코넷시안들은 우리 회사들 중의 하나인 유니베라 한국(구 남양알로에)의 30주년 창립을 기념하게 되었다. 유니베라 한국(구 남양알로에)는 삶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지켜주는 알로에 베라의 뛰어난 효능을 함께 나누고자 한 고 이연호 회장의 열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이 알로에 베라는 오늘날 우리 제품 성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사업 모델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일련의 검증 기간을 거친 모든 다른 기업이 그러하듯, 유니베라 한국(구 남양알로에) 역시 단순한 제품 이상의 기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선함과 배려, 곧 나눔과 봉사이며 이것은 결국 자연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인류에게 선사하는 과정이다.

유니베라 한국(구 남양알로에)의 탄생 이래 30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남양, 알로콧(Aloecorp), 유니젠(Unigen), 유니베라 미국(구 Oasis)로 구성되는 에코넷 기업은 현재 이연호 회장의 유산과 뜻을 이어가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제 유니베라 한국(구 남양알로에)의 유산의 일부가 되고 있다.

에코넷 기업은 이제 세계가 “서번트 리더십”이라 칭하는 철학 안에서 미래의 문화적 모토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신에게 위대한 축복이 돌아오며,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진정한 서비스는 나누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타인을 높일 때 실현되는데 이는 치열한 경쟁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종종 찾아보기 힘든 가치이다.

진정한 서비스는 자신이 편리할 때에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오히려 가장 상황이 열악할 때에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이다. 진정한 서비스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숭고한 그 무언가는 다른 어떤 감정과도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우리의 이러한 가치가 다른 기업과 에코넷을 구별짓는 결정적 차이로 작용하여 에코넷이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천연 제품 기업으로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간이 흘러 우리 모두가 사라지고 난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에코넷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에코넷의 뛰어난 제품도 그 어떤 과학적 발견도 엄청난 수익도 아니다.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에코넷의 일원으로서 제공한 서비스가 우리를 기억되게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에코넷 동료로서 나는 각자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이야말로 말로 우리 모두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상이 될 것이다.

The ECONET Difference

A philosophy which requires Econetians to give of what they have in order to receive the greater gift of the blessings that come from pure service.

By Derek Hall / Vice Chairman and CEO, ECONET, Inc. / USA



If we were to survey companies that were launched over the past 30 years I believe we would be amazed first of all at how many were founded but more staggering would be the number of these companies that have failed and are no longer in business.

I believe the hallmarks of companies that last are those that have a product or service that fills a need, one that has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and, most importantly, one that has a mission that inspires and motivates its employees and changes lives for the better.

This coming April we Econetians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one of our own companies... Univera Korea (Formerly Namyang Aloe). Univera Korea (Formerly Namyang Aloe) was created as a result of a desire by the late Yun ho Lee to share the life changing and life saving benefits of aloe vera, which remains today the basis of most of our product formulations and the backbone and core of our business model.

Like all other companies that survive the test of time, Univera Korea (Formerly Namyang Aloe) has a mission that ascends beyond the products themselves. It is a mission of goodness and caring... it's a mission of sharing and serving... it is the process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The legacy of Univera Korea (Formerly Namyang Aloe) now includes the ECONET companies that have been created in that same thirty year period since the birth of Univera Korea (Formerly Namyang Aloe)... Namyang, Aloecorp, Unigen and Univera USA (Formerly Oasis), each doing its part to continue the legacy and vision of Yun ho Lee for generations to come.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has now crystallized its future cultural mantra within what the world refers to as "servant leadership" - a philosophy which requires Econetians to give of what they have in order to receive the greater gift of the blessings that come from pure service.

Pure service comes as a result of giving, sharing, loving, and uplifting others - values that are not often endorsed or embraced in today's high powered business environment.

Pure service is not service that is performed when it is convenient, rather it is the act of serving someone when it is not at all convenient - true service is most often inconvenient, and the high one receives upon completion of such service surpasses all other emotions.

I'm convinced that our cultural values will be the defining difference that will ensure our position as the best natural products for the world by the year 2011. Long after each of us is gone, we will not be remembered for the wonderful products we sell or the science we discover or even the money we make - no, rather it will be the service we provided as individuals and as an ECONET community that will be our legacy.

It is my hope as one of your fellow Econetians that we will each look inward and resolve to make a difference in our own personal circle of influence... it will be a rewarding experience for each of us.

3사 연구자회의

‘천연물 시장의 영원한 1위 기업’이라는 에코넷의 미래 비전과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업 철학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꿈)’을 선도하면서 ‘웰니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3사연구자회의’를 통해 조만간 태동 되리라.

글 - (주)유니베라 한국 제품연구팀 신은주 차장



에코넷 EAST의 3사연구자회의가 시작된 지도 6월로 벌써 1년이 되었다. 1년, 창사 30주년을 맞는 청년 기업 에코넷에 1년이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은 청년이 앞으로 더 창대할 30년을 위해 깊이있게 R&D에 집중하고 있음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3사 연구자회의’가 중요한 과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3사연구자회의의 모체가 된 것은 TDR-1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3사 연구자 TFT였다. TDR이란 Tear Down & Redesign이란 엄청난 의미를 가진 말로 한국의 대기업인 L사의 혁신 활동 캠페인에서 빌어온 이름이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프로세스나 과정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뜻이다.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TDR-1의 출범은 에코넷이 이런 변화를 더 큰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에코넷 전체의 R&D전략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이 만들어 낸 안이었다.

초기 TDR-1은 조태형 CTO의 지휘 하에 유니베라의 오선택 상무, 남양의 안계환 상무, 유니젠의 우성식 상무, 차지민 상무 등이 주축이 되었고, 필자는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외에도 안전에 따라 관련 연구원이나 마케팅 관련자들까지 참여하여 에코넷 파이프라인 상의 중요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했다. TDR-1은 2005년 6월 수직계열체계(vertical integrated system)상의 ECONET 각 사 R&D의 R&R을 재 정립(redesign)하는 목표를 완성하고 발전적 해체를 맞기 까지 유니베스틴케이의 개별 인정 등 많은 공유와 협력의 사례를 만들었다.

2005년 6월24일 TDR-1은 ‘한국 내 에코넷 3사간의 R&D 협력 과제 도출 및 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인 ‘3사연구자회의’로 새롭게 태어났다.

3사연구자회의는 에코넷의 제품 개발 파이프라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3사연구자회의는 매월 1회씩 모여 건강기능식품 개정 등 R&D 관련 중요 정보 및 현황을 공유하고 각사에서 추진 중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발전적인 토론의 기회를 가지고 있

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니베라(당시 남양알로에)가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기능 중심 제품 구조(Product Frame), 유니젠 및 남양의 연구 및 개발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3사의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정교화된 에코넷의 파이프라인은 유니베스틴케이 및 리제니케어케이의 개별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120%의 힘을 발휘했다. 3사 연구자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추진과정의 효율은 극대화 되었다. 또 지난 4월에는 3사가 각자 다녀온 각종 국제 박람회(NPEW 2006, Foodex Japan 2006, Cosmoprof 2006 등) 참관 결과를 3사 연구자회의를 통해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여실히 확인하기도 했다. 정보란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3사연구자회의를 통해서 여실히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3사연구자회의가 만들어진 지 1년, 이제 3사연구자회의는 조심스럽게 에코넷 R&D의 다음 모습을 다듬어가고 있다. ‘천연물 시장의 영원한 1위 기업’이라는 에코넷의 미래 비전과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업 철학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꿈)’을 선도하면서 ‘웰니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3사연구자회의’를 통해 조만간 태동 되리라. 3사연구자회의의 간사로서 필자가 품어 보는 큰 꿈이기도 하다.

ECONET Research & Development Group East

With the ECONET vision of becoming “an enduring number one company in the natural product market” and the corporate philosophy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a foundation to provide the future vision of the wellness industry while helping customers realize their lifestyle (dreams) will soon be brought forth by ECONET R&D Group East.

By Eunju SHIN, Senior Reacher , Institute of Life Sciences, Univera, / Korea



The ECONET Research & Development Group East will celebrate its first anniversary in June. One year may not be a long period for ECONET, a company that recently celebrated its 30th anniversary and in human terms is old enough to be a young man. However,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he young, vigorous company is making focused, in-depth efforts in R&D to make the next thirty years even greater. The ECONET R&D Group East has been playing a pivotal role in that critical mission.

The predecessor to the ECONET R&D Group East was TDR-1, an R&D taskforce operated

temporarily by the three ECONET companies in Korea. TDR had a quite shocking meaning: Tear Down & Redesign. In fact, the name was borrowed from an innovation campaign launched by a large corporation in Korea. It literally refers to completely abolishing current processes and designing a new future from scratch.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in 2004, the market environment has changed tremendously. The launch of TDR-1 originated from an essential need for R&D strategies to be re-examined and innovated for the mid- to long-term at an ECONET-wide level in

order for ECONET to take advantage of these changes and seize opportunities for further growth and lead the market.

Initially, under the direction of CTO Taehyung Jo, TDR-1 participants included managing directors Seon-taek Oh from Univera, Kye-hwan Ahn from Namyang and Seong-sik Woo and Ji-min Cha from Unigen Korea. I served as a secretary for administrative affairs. Aside from these individuals, other related researchers and marketing-related officers also attended meetings depending on the agenda to jointly undertake important projects in the ECONET pipeline. Until it was dissolved for greater evolution after completing the goal of redesign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ECONET company in alignment with the vertically integrated system in June 2005, TDR-1 produced a number of opportunities for sharing and cooperation, including the KFDA approval of Uninvest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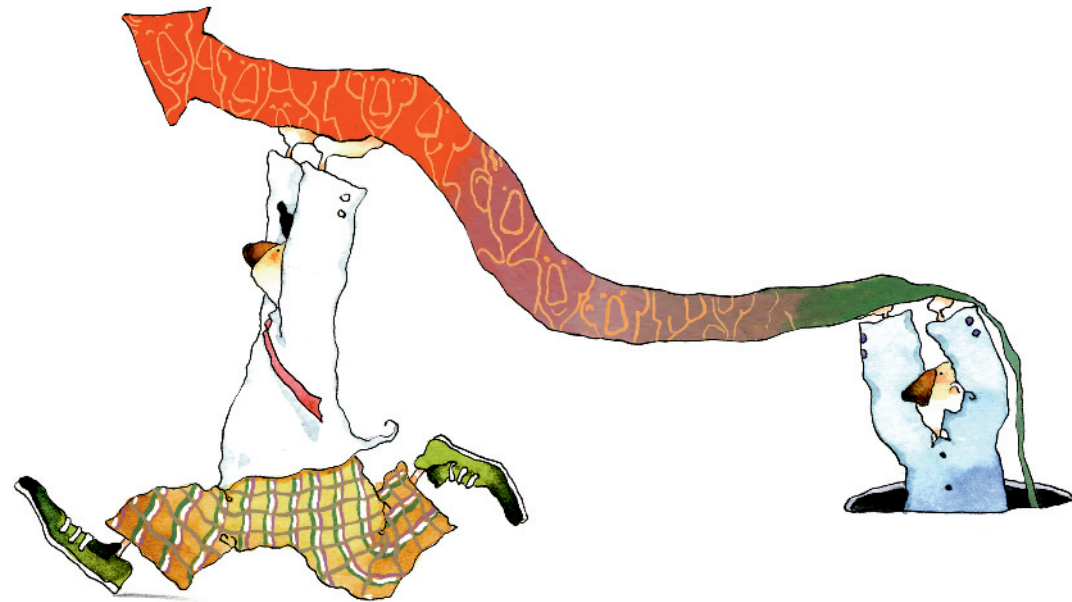
On June 24, 2005, TDR-1 was reborn as the ECONET Research & Development Group East, a community for generating joint R&D initiatives and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mong the three ECONET companies in Korea.

The ECONET R&D Group East has further refined the product development pipeline. The group holds meetings once a month to share important information and updates regarding R&D, including amendments to the Health Functional Food Act, and to hold constructive discussions of R&D projects initiated by each company. Through this process, a function-driven

product framework for health supplements created by Univera (formerly Namyang Aloe) and the R&D updates and performance of Unigen Korea and Namyang are shared by researchers within the three companies.

The refined ECONET pipeline demonstrated its effectiveness 120% when the KFDA approval of both Uninvestin-K and RegeniCare was initiated. Through the ECONET R&D Group East, a system of close cooperation is maintained and process efficiency is maximized. In addition, a synergy was clearly confirmed when the three companies each participated in different international expos (NPEW 2006, Foodex Japan 2006, Cosmoprof 2006) in April and shared their experiences. The ECONET R&D Group East has truly demonstrated that information can be of greater value when shared by many.

It has been one year since the ECONET R&D Group East was established. Today, it is carefully shaping the next phase of ECONET R&D. With the ECONET vision of becoming “an enduring number one company in the natural product market” and the corporate philosophy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a foundation to provide the future vision of the wellness industry while helping customers realize their lifestyle (dreams) will soon be brought forth by ECONET R&D Group East. This is a great aspiration cherished by me as secretary of ECONET R&D Group East.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

글 -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인사팀 김남규 팀장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기업문화코드의 이론적 배경으로 대두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하여 월별 테마를 통해 조금씩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단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에코넷 내부에 체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6월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

6월의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경청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청을 실천했을 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많은 리더들은 자신의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으로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경청은 서번트 리더의 행동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청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진실로 실천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경청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고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S. 헬레나(일터문화연구포럼 공동 필명)가 지은 <레오와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일상에서의 듣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사들 중에는 자신은 경청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부분은 경청이 아닌 유사경청입니다. 그들은 부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되 들은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으며 절차상 경청의 순서를 밟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하들도 마음의 문을 닫고 깊은 고민보다는 표피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대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상사들은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부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 상사는 시간이 없다고 느낍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서는 의식을 가지고 듣지만 관심 없는 부분에서는 무의식적 듣기 수준입니다. 관심 없는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시간이 없으니 요점을 이야기하라고 몰아갑니다. 선택적 청취는 비판적으로 듣고 자신이 말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빠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만나는 것

경청은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경청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부하들과 대화할 때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자신이 대응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온 정신을 집중해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7월 서번트 리더십 테마 컬럼

7월의 서번트 리더십 테마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동료나 부하직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

감은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나도 공유하고 공통의 느낌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부하직원이 선의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공감은 내적인 동인을 이끌어내는 자극입니다. 리더의 공감의 에너지는 구성원들에게 전해져 구성원들로 하여금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의 분산을 막고 조직과 업무에 몰입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하게 만듭니다. 공감이 이루어진 직원들은 삶과 업무의 문제해결을 위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자가 발전해 냅니다.

공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지한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경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공감적 경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청을 통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분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야기의 전체를 듣고 진정한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기존의 경험이나 인식에 의한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논리로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느끼고 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충고하는 식의 태도를 삼가 해야 합니다.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일을 추진하였는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힘들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kyu Kim

Servant Leadership has emerged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our corporate culture, and we have introduced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to allow you to learn about servant leadership little by little through monthly themes. It is also designed to internalize servant leadership within ECONET through actual practice instead of mere theoretical study



This is true when you practice to be a good listener. Many leaders mention being a good listener as an important quality of their leadership. In addition, listening is known to be the greatest attribute required in the behavior of servant leaders. Listening is tremendously important, but it is easier said than done. In order to be a good listener, you ne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and make sincere efforts.

Leo and Servant Leadership authored by S. Helena, a pen name for the Workplace Culture Research Forum, presented the following analysis of listening practiced in our daily lives.

“Many bosses often think they are good listeners. However, most of them are not careful listeners; they are only quasi-listeners. Although they do listen to stories told by their people, they state their positions regardless of what they have heard or persuade the other party with their own situations and try to push their demands. A conclusion has already been formed and they are going through the step of listening only for the sake of procedure. Therefore, their subordinates will not open up and will end communication by exchanging superficial comments rather than profound concerns that come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s.”

June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for June is “listening.”

There is a saying that listening well, rather than speaking well, is the key to successful communication.

“Most bosses listen selectively. When they talk to or are briefed by their subordinates, bosses think they don’t have the time. Although they listen attentively to parts they are interested in, they listen perfunctorily to areas that are of little concern to them. When they hear things of no interest, they interrupt and force the other party to just get to the point since they are running out of time. In selective listening, you listen with a critical attitude and to prepare how you’re going to respond. In order to offer criticism and reach a conclusion quickly, you place greater emphasis on speaking rather than listening.”

Listening is an encounter with a sound from within the other party

Listening is an encounter with a sound from within the other party. Listening is different from simply hearing and understanding what other people say.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e other party really wants, you need to make efforts on your side.

When you have a conversation with other people or with your subordinates, please bear in mind and consider the following. Do you ever interrupt others and tell your story? Do you ever think about how you are going to respond when the other party talks? Do you concentrate and try really hard to understand what the other party is saying?

July Servant Leadership Theme Column

The Servant Leadership theme for July is “empathy.”

Empathy is winning true understanding from colleagues or subordinates. Empathy is not about logical analysis; it is about placing oneself in other

people’s shoes and sharing in their experience to share a common emotion. In order to do so, you need to first hold the belief that your co-workers and subordinates behave in good faith.

Empathy is a stimulant that elicits inner motives. A leader’s empathy energy is conveyed to his or her people and prevents conflicts that squander mental and psychological energy and helps them focus on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achieve higher performance. Employees who empathize with others are able to ceaselessly generate the energy required to tackle problems in their lives and in their work.

In order to gain empathy, you need to be a true listener. In order to be a good listener, you must in turn be capable of empathizing with others. Some therefore describe this as empathetic listening.

In order to develop empathy through listening, you need to make an effort to listen to the entire story of the other party rather than being obsessed with only certain parts, and work to gain a true understanding. You should not try to analyze a certain situation or person using your logic or predetermined notions developed based on your experiences or perceptions; you need to convey that you are thinking and feeling from their viewpoint. When you speak to others, you need to avoid using a critical tone and giving one-sided advice. You should not make evaluations based on outcome alone. You need to consider means and processes others went through to achieve the outcome. You have to try to understand what the obstacles were and what was required in that process.

에코네시안에게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08년부터는 공식회의 모두 영어로 진행될 것이고 에코넷의 공식언어는 영어가 될 것이다.”



글-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인사팀 문길성 대리

“2008년부터는 공식회의 모두 영어로 진행될 것이고 에코넷의 공식언어는 영어가 될 것이다.” 2단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에코넷 이병훈 총괄사장께서 영어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이다.

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현재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 1시간인 경우가 52.3%, 2시간인 경우가 24.9%, 3시간인 경우도 10.4%나 된다고 하며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영어(31.4%)다. 5개국에 기반을 다지고 있는 에코넷에서 글로벌 확장을 화두로 뛰고 있는 2006년을 포함한 향후 3년동안 영어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미 실무적으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영어가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분야라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필요에 의해 즉각적으로 업무에 영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많은 지원 및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에코넷 EAST 3사의 승진 대상자에게 2007년 승진대상자부터 영어 최소기준점수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의 실시예 따라 승진대상자들이 최소한으로 설정된 영어점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사정에서 탈락하게된다. 승진 대상자에게 적용될 최소점수기준은 2005년 하이난 워크샵이전부터 다양한 외부사례와 에코넷 내부의 영어점수현황을 고려하여 여러 번의 논의와 고심을 통해 결정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승진대상자들은 토익과 Sept 기준 중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2010년 승진자부터는 토익테스트 점수가 평가기준에서 제외되고 Sept만 적용하게 된다. 말하기 능력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취지이다.

직원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과 영어교육지원제도의 효율성, 효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실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전 에코넷차원의 영어교육이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최초로 시도되었던

온라인교육, 통신교육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사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강사 방문교육도 확대하였다. 전체적인 영어능력향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 2회 전사원 대상의 토익테스트가 7월과 11월 즈음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의 효과는 물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인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이수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에코넷 본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교육과 통신교육에 대해서는 연도별 개인 수준차에 따라 최소한의 토익점수 점수상승 기준목표를 제시하여 올해 11월까지 실시되는 내부 및 외부테스트를 막론하고 1회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점수를 획득하면 에코넷기업본부가 제공하는 이수기준은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본인의 향상의 기준이 되는 점수는 금년 1월에 치른 테스트 점수가 기준이되며, 1월의 테스트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1월 전체평균점수가 기준이 된다. 각 기준점수별 상승기준은 기준점수가 400점 미만인 직원은 50점 향상, 400~800점인 직원은 30점 향상, 800점 이상인 직원은 800점 이상 유지할 때 이수가 인정된다. 또한, 각사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한 영어교육을 수강한 직원들에게는 사별 자체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확대된 교육제도의 지원이 직원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영어를 잘 하고 싶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노력 만이 원하는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꿈과 이상을 펼칠 에코네시안이며 아름다운 도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유니베라한국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글 - (주)유니베라 한국 마케팅본부 조복희 상무

남양알로에가 새 이름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던가?

물론 이병훈 사장님 머리 속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겠지만, 나로서는 아마도 입사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참가했던 2004년 6월의 러시아 연수 때부터였던 것 같다. 오후 2시쯤이던가, 짹짹한 그 땀별 아래서 기다란 나무 결상에 앉아 기본적인 브랜드 용어 설명부터 시작했던 것 같다. Corporate brand, family brand, individual brand, modifier…… 그 당시 윤경수 상무, 우성식 상무, 심호영 이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왜 그 자리에 남양알로에 사람은 신입사원인 나밖에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부터 남양알로에뿐 아니라 에코넷 전체에서 브랜드가 화두가 되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건 순전히 브랜드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임원 미팅 때마다 주요 이슈는 브랜드였고, 그 첫 걸음이 메타브랜딩과의 컨설팅 작업이었다. 브랜드에 미친

사나이 박항기 사장과 작은 이슈라도 명쾌한 결론을 얻지 못하면 밤을 꼬박 새는 박찬희 실장의 열정이 없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수많은 외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메타브랜딩 식구들만큼 보석 같은 존재도 없을 듯 하다.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과 포트폴리오 전략 컨설팅이 약 4개월에 걸쳐 1차 완성되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한 직접판매회사로서 천연물의 세계적 강자가 되기 위해, 글로벌판매법인 통합브랜드 구축’이 우리가 세운 대명제였다. 이제부터는 신규 브랜드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 글로벌 판매법인 통합브랜드인 만큼 미국 오아시스와의 합의 도출이 필요했다.

2005년 4월말, 정찬수 상무 주도하에 이재은 이사, 조준용 차장, 나, 그리고 메타브랜딩의 박찬희 실장과 통역 도우미까지 6명의 대식구가 시애틀로 향했다. 1주일에 걸친 첫 미

팅은 오아시스에 대한 전사적 탐색전과 같았다.

시차적응 안되고, 말은 안 통하고, 통역 도우미는 엄청 버벅거리고, 회의시간에 왜그리 졸렸었는지, 졸다가 옆의 정찬수 상무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도 수 차례……

아침9시부터 6시까지 내내 회의, 저녁식사 2시간, 호텔에 들어오면 밤 9시, 그 때부터 다시 다음날 회의준비 밤12시까지, 이제 다시는 죽어도 하기 싫은 고행의 시간이었다. 그게 지금부터 딱 1년 전의 일인데, 까마득한 옛날같이 느껴진다.

그로부터 GBC(Global Branding Committee)가 발족되고 매달 1회씩 서로 오가며 브랜드전략미팅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간 GBC일을 같이해온 Stuart Ochiltree, Stan, Tom에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다. 사실 남양알로에가 30주년에 맞춰 먼저 런칭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도 많았었다. Oasis 측에서 우릴 참 많이 배려하고 이해 해주면서 무조건적으로 잘 협조해주었기에 지금까지 순조롭게 왔던 것 같다. 그러면서 서로의 문화와 시스템 차이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이해도 생겼다. 싸우면서 정든 Stan 부사장이 회사를 떠난다 할 때 어찌나 섭섭하던지……

한편 내부적으로는 ‘남양알로에’를 신봉하는 우리 영업조직에 어떻게 브랜드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가가 크고 무거운 과제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없던 부분이기도 했다. 남양알로에를 알게 된 건 이제 겨우 1년 남짓인데, 30년을 지켜온 터줏대감들에게 어떻게 창씨개명을 하라고 하지?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어떻게 설득력 있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한낱 기우였다. 역시 우리 남양알로에 조직의 수용능력, 그 그릇의 크기가 무한함에 새삼 놀랐다. 사장님들이 주축이 되는 해남도 영업국장 세미나와 전국사장단 세미나에서는 물론, ‘설계사 새이름 공모전’이나 ‘코스메틱 프로슈머’에 참여하는 설계사들의 뜨거운 열정은 가히 감동적이었고 오히려 본사 진행자인 우리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었다. 그로써 설계사 새이름 UP가 탄생했고, 신규 화장품

개발도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다.

브랜드 런칭을 코 앞에 둔 2월, 3월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회사이름 하나 바꾸는데 새로 만들고 챙겨야 할 것들은 왜 이리도 많은지. 물론 전사적으로 합심해서 일을 추진하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마케팅본부 직원들에게 가장 미안하고 고맙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과로로 얼굴들이 누렇게 떠가는데도 계속 일을 주고 채근해야만 하는 심정이란 감당하기 쉽지않은 일이었다. 덕분에 우리 김종수 주임은 말하기 좀 그러한 부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머플러를 튜닝해야 했고, 김정훈 주임은 정신없이 걷다가 유리창 프레임을 받아서 다리 깁스를 하고, 변인숙 대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패키지 원고 교정 보느라 피부 알려지 재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행사날 아침, 비바람이 몰아쳤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차를 몰고 유성으로 가고 있는데, “1년 동안 오늘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구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는 김종수 주임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다.

언젠가 철들고 나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으며, 또한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진실,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오직 하나의 진실이 담긴 유니베라 브랜드는 이렇게 우리들 모두의 땀과 열정으로 맺어졌기에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는 8월이면 미국 오아시스도 Univera USA로서 정식 출범하게 된다. 이제 곧 세계 어디에서든 유니베라의 깃발, 유니베라의 리제니케어, 유니베라 UP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유니베라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자연의 능력을 키워, 세상을 더욱 건강하게, Heal the World!” 세상 모든 이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변화 되도록, 우리 유니베라인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이다.

Preparing for the Launch of Univera Korea

By Clara Cho, dierector, Marketing Division, Univera Korea

When did Namyang Aloe first begin to make moves to rename itself?

Indeed, Bill Lee must have been brooding over this for years. As I recall, it was during a training session in Russia in June 2004, less than a month after I joined the company. Perhaps it was around two o'clock in the afternoon. We sat on a long bench under the scorching sun and we began discussing descriptions of basic branding terms: corporate brand, family brand, individual brand, modifier and so on. COO K.S. Yoon, Managing Director Seong-sik Woo and Director Hoyoung Shim were also present at that session. I'm not sure why Namyang Aloe was represented by just me - a practically new member. Since then, branding has become a focal topic not just within Namyang Aloe, but throughout ECONET as well. In fact, to think of it now, I believe I joined this company purely because of branding.

Since then, brand has been a key agenda item at every executive meeting. The first step we took was a consulting project with Meta Branding. Without the passion of President Hangki Park, who is devoted to branding, and General Manager Chanhee Park, who would stay up all night to reach a clear - cut conclusion on every small detail, we would have never completed the project in such a short time. As we do business, we are assisted by a number of outside people. Few are as valuable as the staff of Meta Branding.

The first phase of the consulting project to define brand identity and a portfolio strategy, which began in November 2004, was completed in about four months. The main proposition was "establishing an integrated brand for a global sales company to become the world leader in natural products as a global direct-selling company both in name and in actuality." Then it was



time to develop a new brand. Since we were working to develop an integrated brand for a global sales company, a consensus with Oasis Life Sciences was necessary.

In late April 2005, a six-member team led by Managing Director Chansoo Jeong, including Director Jaeun Lee, Deputy Senior Manager Joonyong Cho, Senior Manager Chanhee Park from Meta Branding, an interpreter and myself left for Seattle. The first round of meetings, which continued for one week, was likened to a thorough probe of Oasis Life Sciences. I suffered from jet lag and could not communicate in English, and the interpreter kept on mumbling to herself. I felt so sleepy during the meetings. In fact, I dozed off a few times and Managing Director Chansoo Jeong, who was sitting next to me, prodded me several times with his fist.

The meetings continued from nine o'clock in the morning until six o'clock in the evening. After a two-hour dinner, it was past nine o'clock at night when I returned to my hotel room. Then, I had to prepare for the next day's meeting until midnight. It was a truly painful time that I never want to relive. It was exactly one year ago, but it feels like it belongs to the distant past.

Then the Global Branding Committee (GBC) was founded and we alternated visits to each other to continue the monthly brand strategy meetings until today. I could not do enough to thank Stuart, Stan, and Tom, who have been working with me as part of the GBC. In fact, I made excessive requests on the grounds that Namyang Aloe needed to launch the new brand in time for its 30th anniversary. Oasis was very considerate of us and showed great understanding and unconditional cooperation. I think that's why we were able to move forward smoothly until today. Throughout the process, we were able to understand differences in culture and systems fairly well. I was so sorry to hear that Stan was leaving the company, who in fact became a good friend through a series of arguments.

Meanwhile, how to approach the sales organization, the true believer in "Namyang Aloe," with the new brand strategy was a huge dilemma internally. I felt least confident about this. I have known Namyang Aloe for only about one year. How can I dare tell people who have been with the company for thirty years to change their name? How could I convince them and overcome this with my meager knowledge?

However, it turned out to be needless concern. I was once again surprised by the adaptability of the Namyang Aloe organization and the unlimited scale of its acceptance. Both the enthusiasm demonstrated by sales agency heads in the Hainan Island Sales Bureau Director Seminar and the National Sales Agency Seminar and the passion shown by associates in the "Open Contest for a New Name for Associates" and "Cosmetic Prosumer" were impressive and touching. In fact, the organizers at headquarters were further motivated by these. As a result, UP, the new name for associates, was born and the development of new cosmetic products is progressing superbly as planned.

In February and March, when the launch of the new brand was imminent, we started the final countdown. So many things had to be done and newly produced to rename the company. Of course the entire company joined hands and worked together, but I am most



grateful and apologetic to the staff of Marketing Headquarters. Everybody was overworked. I did not feel comfortable giving them assignments and asking them to do more when fatigue was apparent in their faces. Because of all this toil, Supervisor Jongsoo Kim had to seek some treatment in his delicate part (comparable to having a muffler fine-tuned in an automobile); preoccupied with work, Supervisor Jeonghoon Kim walked straight into a window frame and had to have a cast put on his leg; and Assistant Manager Insook Byun stayed up late every night proofreading packaging materials and suffered a relapse of a skin condition.

Then, finally, on the morning of April 19, D-day, we had a rainstorm. I actually felt like crying during the drive to Yuseong, the venue for the event. Then I received a text message from Supervisor Jongsoo Kim: "We ran like crazy for the past year to reach this day. I learned a lot from you. Thank you for the great job." I couldn't help but burst into tears.

One truth I learned after maturing enough to know more about the world is that "nothing is gained for free and nothing can be achieved by oneself." The brand Univera, which epitomizes one truth,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shines because it is the product of our labor and passion.

In August, Oasis Life Sciences will officially be launched as Univera USA. We will soon be able to see the flags of Univera, RegeniCARE by Univera and Univera UP all around the world.

The history of Univera has newly begun. "Heal the World through the Enhanced Ability of Nature!" The members of Univera will constantly pursue, take on challenges and care for others throughout the world to help make people's bodies and minds healthier and more beautiful.



유니베라 라이프 사이언스 고객관리팀

팀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즐거운 근무 환경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정말 좋아하며 매일 매일이 즐거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필요하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글 - 유니베라 미국, 마사 존슨 고객관리팀 이사

1. 이 팀은 어떤 일을 합니까?

유니베라 사이언스 고객 관리팀은 유니베라의 독립적인 판매 조직들을 지원합니다. 2006년 매달 주문, 회사에 관한 질문, 웹사이트, 제품 정보 및 불만 사항 등에 관한 30,000여 통의 전화가 고객관리팀으로 걸려왔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팀을 별도로 두어 팩스, 우편, 이메일, 스캔, 자료 관리 및 기타 중요한 업무 기능을 맡기고 있습니다.

2. 언제 처음 구성되었습니까?

유니베라 라이프사이언스는 2004년 8월 콜로라도에서 워싱턴 레이스로 이전하였습니다. 첫 해에만 매달 2,000통

에서 30,000통으로 전화 문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유니베라 오프라인 팀은 매달 업무가 800건에서 19,000건으로 급증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3. 그 이후로 팀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12명의 고객관리담당자가 주문을 받고 4명이 2개의 다른 전화 번호로 고객 문의를 처리했으나 2개의 다른 번호로 전화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하나로 통일하고 두 팀을 하나로 통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들은 한 번호만을 이용해서 주문과 회사 및 제품에 관한 문의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 교환이나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할 필요가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로” 콜 센터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 내었고 소비자, 회사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관리 센터 운영 비용을 줄이게 되었고 생산팀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이 원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원들 또한 회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으며 스스로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니베라 전체의 업무 수행력을 증진시키면서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이 모두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고객 서비스 관리 인력이 36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간부들만을 지원하는 “다이아몬드 지원팀”을 새로 추가하여 모든 문제를 몇 분 혹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길게는 2시간 내면 모두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간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 업무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고객과 현장의 Associate들에게 고객 유지와 웹 지원팀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만족과 “업계 최고”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 팀이 직면했던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사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자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중요한 프로젝트의 도입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유니베라 전체에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몇 가지 변화를 겪었고 현재 우리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우리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유니베라의 임직원 및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 말! 말!

1. 안드레아

고객관리팀은 팀이라기 보다는 가족 또는 하나의 유기체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퍼즐 조각처럼 역할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팀의 리더인 Martha씨가 각 개인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 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는 트레이닝은 매우 포괄적이며 매일 매일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에 달려있는 관계로 지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테스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객관리팀의 구성원으로서 이점을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모르고서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까? 팀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즐거운 근무 환경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정말 좋아하며 매일 매일이 즐거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필요하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팀의 리더인 Martha와 Raz (리치 라즈가이드스) 는 우리가 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Raz는 직원 할당 제품의 수량을 늘임으로써 직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해보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데 있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2. 안젤라

팀으로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가 항상 도와줄 수 있고 우리 모두 서로를 도울 수 있으니까 말이죠.

3. 브룩

저희 팀과 일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서로를 지지합니다.

4. 캐리

이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한 집단에 새로 편입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서 잘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및 현장 지원은 최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정말 훌륭했으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Kristin은 각 개인별 특성에 맞게 우리를 잘 이끌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좋아하며 그것이 지금 제 삶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 클레나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사합니다. 특히 사내 지원 체계는 현장 지원과 트레이닝 모두에서 제가 본 중 최고입니다.

6. 타라 모세스

고객 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때로는 무척 반복적일 수도 있는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파분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매우 역동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부에는 현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야 말로 하나의 팀이며 다른 곳에서였다면 이런 팀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7. Erica

우리 팀 정말 좋아요!

8. 보니

우리는 모두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하고자 하며 이를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팀원들입니다. 주위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매일 즐겁게 출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좋고 고객과 Associate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9. 크리스틴

우리팀이야 말로 협력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날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팀원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더 많이 알수록 트레이닝도 더 쉬워집니다.

10. 헤더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정말 훌륭합니다. Kristen은 신입 사원 교육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며 팀원 모두가 매우 친절합니다.

11. 뎀

저는 팀과 회사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모두가 한 가족 같아서 매일 출근이 즐겁습니다.

12. 보니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입 사원들이 학교와 같은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고객 관리부도 발전합니다.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운영진들은 방대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로 교육 자료 또한 매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13. 니콜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일하러 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돈을 벌어야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이 곳은 즐기면서 일하고 또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도와주려 노력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들 중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해요.

14. 브라이슨

니콜이 이 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 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면서 저는 모든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은 제가 일했던 곳들 중 정말 최고입니다. 유니베라가 이처럼 제가 의미하는 “ 일만을 위한 일이 아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 을 하는 환경이 되도록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15. 샬린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젊고 생기넘치는 여직원들과 일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모두가 생기있고 즐겁고 평화로우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고객과 Associate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하느라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는답니다.



The Voices of Care at Univera Lifesciences

As a group, we are very supportive of each other. This is a pleasant place to come to work. I really love the people I work with and have a lot of fun here every day. I feel needed and useful here. Our customers and associates go out of their way to let us know how much we are appreciated.

By Martha Johnson (Director, Customer Service / Univera USA)



1. What does this team do?

The Customer Care Team for Univera Lifesciences support our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s. In 2006, Customer Care received approximately 30,000 calls per month consisting of orders, questions about our company web site, product information, and reporting. We have an Off Line Team that processes faxes, mails,

voice mails, e-mails, scanning, database management and other critical business functions involved.

2. When was it first established?

Univera Lifesciences moved to Lacey, WA from Colorado in August of 2004 . In the first year, we had a

significant influx of call volume, from 2,000 calls per month to 30,000. Our Off Line Team grew from 800 items per month to 19,000 items. A substantial growth over the last year.

3. Were there any changes made in the team?

Initially we started out with twelve CSRs taking orders with four CSRs answering questions on two different 800 numbers. It was very frustrating for our Customers to call two different support lines.

Therefore we merged the two teams with a Universal approach under one 800 number. The Customers were very pleased to have one number and to place orders or answer any questions they might have about the business. This process is called “One and Done” it only takes one phone call and you are done. No transfers or calling back on a different number is necessary. With this approach we made our Customers happy. It was also a positive change for the Customers, employees, and the Company. It reduced the cost of operations and removed calls from our production departments, allowing them to focus on their primary functions. The Employees gained knowledge across the business from beginning to end which made them feel like valued employees. This also made employees much more marketable. We increased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ee satisfaction for all of Univera.

Today, we still have the same structure but have a total of 36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We have added a Specialized “Diamond Support Team” that handles only Field Executives exclusively and resolves all matters within minutes or a maximum of two hours due to research. They are managing relationships, which is a critical part for success out in the Field. We are hoping to extend additional services to our

Customers and Field Associates in the near future, an example would be a Customer Retention and Web Support Team. We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with the right focus, satisfying our Customers and being “Best In Class.”

4. What was the most difficult thing the team faced and overcame?

The rapid grow of our business created challenges with resources,communications systems, and implementation of critical projects across all of Univera Lifesciences. In the last few months changes have been implemented which are now allowing us to recover. We are all very grateful to our Executives and employees for all the long and enduring hours worked to keep us on this incredible journey and keeping our beliefs strong to bring the “Best of Nature for Mankind.”

Quotes from CSRs

1. Andrea

It’s hard to think of our group of CSRs as a “team”. It feels more like a family or an organism. All of us come here with different gifts or abilities. Each of us compliment one another, and fit together like parts of a puzzle. I especially appreciate the way our servant leader Martha orchestrates the structure of our group, carefully placing each person where she feels they will do the best job for the group. Our training is very thorough; equipping us well for the momentous job we must do every day. There is so much to know! Continuity is vital because people’s livelihoods depend on us giving out the right information. We not only given good information, but we are tested on what we know. I as a CSR truly appreciate this, because if you don’t know where you are deficient, how can you correct the problem? As a group, we are very



supportive of each other. This is a pleasant place to come to work. I really love the people I work with and have a lot of fun here every day. I feel needed and useful here. Our customers and associates go out of their way to let us know how much we are appreciated. Our leaders, Martha, and Raz make sure we have the tools we need to be successful at what we do. Raz went so far as to increase our employee allowance of product, so we could try even more of our products personally, and be able to recommend them to people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This is the best place I've ever worked!

2. Angela

Well I think working with a team is awesome when you need help there is always someone there who can help you and we all help each other out.

3. Brooke

I love working with this team. We have so many different personalities, but we all seem to work together to get the answers we need, and support each other when we are having a bad day, or a good one for that matter.

4. Carrie

I really enjoy working with everyone here. Being new is hard, but everyone has been so helpful and eager to assist. I think everyone really works well together as a team. The management and floor support is the best! I have never worked with such a great team and awesome company! I love how management has our best interest in mind and goes above and beyond to show that! The training was great; Kristin is a very good teacher and teaches according to everyone's learning styles. I enjoy my job and that is a first for me.

5. Glenna

I love it! Love being here, love the support system, best I've ever seen, both on the floor and in the training!

6. Tara Moses

Working in Customer Care has allowed us to make the most of a job that at times can be very repetitious. There isn't a dull moment around here. We have a few that have such DYNAMIC personalities, then there are a few that are more reserved and quiet, but all the same, we come together as a family and give it our all! Training programs are currently in place for Customer Care that allows transition to go much more smoothly and the knowledge of our newer employees to be much more efficient. We're a team here and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7. Erica

I think that our team is great!!

8. Bonnie

We all strive to be successful in our jobs and our teammates help us get there. We have people around us that have a positive outlook, and this really helps promote a good work environment where you can enjoy coming to every day. I enjoy working here and it feels great to be able to help our customers and associates.

9. Kristen

I would just say we have the best team who really know how to work well together. I rely on a lot of them in a huge way to get different things done on a daily basis. The more our team knows the easier the training becomes.

10. Heather

The new, well not so new anymore, training program is fabulous. Kristen does an awesome job training the new hires. Everyone on the team is very helpful.

11. Deb

I love this team and I love this company. We are all like a big family, which makes it nice to come to work

each day. Team work all the way.

12. Bonnie

I think the training program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all the time. I really like the fact that new hires are able to spend time learning in a classroom atmosphere. The more knowledge we have the better CSR's we are. The people doing the training are both knowledgeable and have an excellent way of introducing subject material. Learning can be fun!!!!

13. Nicole

Whenever I come to work it doesn't feel like actual work. Sometimes you have a job that you just go to each and every day because you need the money. Working here is more of something that you enjoy doing and they actually pay you to do it! The people here are always so friendly and everyone is willing to help you no matter what question you have. It's one of the most comfortable work places that I have ever worked at.

14. Bryson

I read Nicole's summary of how she feels about working here. I echo those words, exactly. Having been in two different departments, I've seen both sides. This has been the best working experience I've ever had. Thanks for being one of those people who make Univera great place to ... "work" ... and I use that term loosely.

15. Charleen

I enjoy working with the young energetic girls at the Call Center. They are so full of life, joy, peace, and purpose! Though at times we are busy and stressed, trying to accomplish our goals of making our customers and associates happy, we always take time to say something nice to each other.



우리집으로의 초대

유니베라 영업본부 대구경북팀

김윤식 주임의 가족을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 - (주)유니베라 한국 마케팅본부 고객지원팀 박정아 팀장 / 기자

예년과 달리 비가 많이 온 5월의 대구는 소문만큼 덥지는 않았다. 환한 미소의 부인 박윤희씨의 반가운 인사가 시원한 바람과 함께 기자의 여정피로를 풀어주는 듯했다.

문) 대구에서 결혼하게 되었나요? 만난 사연을 얘기해주세요.

대학때부터 동갑내기 부인과 8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긴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 행복했어요. 2002년 9월 8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큰 기념일입니다. 제 아내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마음씨 때문에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었죠.

문) 아이들이 정말 귀여운데, 소개 좀 해주세요.

큰 아이는 4살의 딸, 연우이구요. 둘째는 누나 이름 덕에 태어난 아들 선우입니다. 다른 분들은 웃으실지 모르지만, 딸이 있으니 아들도 갖고 싶은 마음에 좋은 날까지 받아서 정성스럽게 가진 아들입니다. 그 좋은 날을 위해 제주도 여행까지 갔었어요. ^^

문) 가족이 있어, 좋은 점이 있다면?

한 마디로 '든든하다' 입니다. 아이가 생긴 초기에는 잘 몰랐었는데, 아이 둘이 되고 자라는 것을 보면 하루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새로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활력소이자 재충전소입니다. 하하..

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길 바라나요?

한국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욕심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공부보다는 인간 됨됨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유니베라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친구와도 잘 어울리며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빠를 닮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문) 올해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족의 보금자리로 우리집을 갖는 게 계획이구요. 입사 4년차인 올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90%정도는 진행되었습니다. 집들이 할게요. 꼭 오세요.

문) 우리 집에서만 하는 놀이가 있나요?

주말은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습니다. 벼, 보리는 물론 고추, 감자, 깨, 양파 등 여러가지를 직접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도 함께 키울 수 있고 자연을 느끼게 하는 좋은 교육이기도 하죠. 냇가에서 함께 물놀이도 하구요. 땀과 즐거움을 한꺼번에 즐기는 겁니다.

문) 가족들에게 서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부부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 마음속의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아이들도 잘 안아주고, 책도 함께 읽고 이런 모습을 그려봅니다만 아직은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서로가 받아주자고. 요즘은 가끔 퇴근할 때 아내 볼에 뽀뽀로 인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깍질을 깎수록 새살을 보여주는 양파처럼 껍질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 김윤식 주임은 에코넷웨이에서 보다 많은 에코네시안들이 소개되어 서로를 알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부탁도 해주었다. 상큼한 5월의 향기가 묻어나는 김윤식 주임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로 기자의 마음도 뽀뽀해지고 풍성해진 느낌이다.





*For this issue, I visited the home of **Yoonshik Kim**, a supervisor at Univera Sales HQ, Daegu-Gyeongbuk Team, and interviewed his family.*

Interview - Jeong Ah Park, Customer satisfaction Team Manager, Marketing, / Korea / Reporter

After an unusually rainy May, Daegu was not as sweltering hot as it is notorious for being. Together with a cool breeze, the bright smile of Yoonhee Park, the wife of Yoonshik, greeted me and dispelled my tiredness from traveling.

Q) Did you get married in Daegu? How did you two meet?

We went out for eight years - since university - before we got married. Because we have been together for such a long time, there have been ups and downs. I was very happy that we were finally able to tie the knot. September 8, 2002 is a very significant day for all of us in the family. As you can see, my wife is truly lovely. Above all, she is kind-hearted. That's what made me want to marry her.

Q) Your children are really adorable. Please introduce them to me.

Our eldest is our four-year-old daughter, Yeonwoo. The second one is Seonwoo, born a boy thanks to his sister's name. Some may laugh, but after having a

daughter, I wanted to have a son as well, so we made every effort to have a son. We had an auspicious day selected to conceive him, and we even went to Jeju Island for that lucky day!

Q) What is good about having a family?

In short, I feel "anchored." I didn't fully realize this right away after I had a child, but after having two children and watching them grow up, at the end of a day of work, my tired body and mind seem to be renewed just by looking at them. My children are a revitalizer and reenergizer to me [laughs].

Q) How do you want to raise your children?

Korean parents are known to have high expectations as far as their children's education is concerned. However, I am slightly different. I think a man's nature and personality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his learning or knowledge. I thought about this a lot particularly after joining Univera. Growing up to be a competent person is nice, but I want my children to be indispensable by others and healthy and get along well



with their friends. I am sure they will grow up to be great people if they look up to me for these qualities [laughs].

Q) Do you have any special plan for this year?

We plan to buy a house and become homeowners. I think I can realize this dream this year, after working four years. We're about 90% of the way there. I'm going to have a house-warming party, and you're invited, of course.

Q) Is there a unique recreation or activity you do with your children?

On the weekends, we go to the countryside and do some farming. We grow a variety of things: rice, barley, chili peppers, potatoes, sesame, onions, etc. I believe this is fun time I can spend with my kids. The children can cultivate their hopes and dreams as well. This is a good way for them to experience and learn about nature. We play in the water in streams. We sweat and have fun at the same time.

Q) What would you like to ask of your family?

Because my wife and I are both from Gyeongsang Province, whose people are known to be blunt, we are not very good at expressing the caring thoughts we have. I'd like to hold my children more often, read books to them and so on, but I'm still not very good at this. So we try to talk a lot instead. We tell each other what we want and do that for each other. These days, when I come home from work, I give my wife a peck on the cheek instead of just saying "hello."

Like an onion that reveals a new face as each layer is peeled off, you will find greater charm as you get to know him more. Yoonshik also suggested that more ECONETIANs be introduced through ECONET Way so we can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The story of Yoonshik's happy family, reminiscent of the refreshing fragrance of May, enriched and revitalized me.

신혜경



(주)유니젠 신소재 사업부 구매영업팀 신혜경 대리.

‘아! 이사람 진국이구나’

글 -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기획인사팀 곽은정 대리

칭찬릴레이 아홉번째 주인공은 바로 유니젠 신소재사업부 구매영업팀의 신혜경 대리입니다.

칭찬릴레이기에 누군가 한사람을 칭찬해야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에코넷 직원중에 단 한사람만을 칭찬해야 하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칭찬할 아홉번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은 유니젠의 신혜경 대리입니다.

유니젠의 신혜경 대리를 처음 만난건 1992년 11월 입니다. 현재 유니베라인 남양알로에의 입사를 위해 성수동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가 생각납니다. 면접을 위해 잠시 대기중이었을 때 음료수를 건네며 편하게 대해주었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나중에 그당시의 얘기를 본인에게 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신혜경 대리의 평소 모습이랍니다.

현재도 병천에 위치한 유니젠에 근무하며 서울에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회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흠잡을데 없이 목소리 나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신혜경 대리와의 이야기를 나눴본 사람이라면 ‘아! 이사람 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집안의 장녀로서 주변사람들의 상담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리감없이 가까워 질수 있는, 주변에 보기도문 된사람이지요.

지금은 유니베라와 유니젠의 먼거리만큼이나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의지하는 나의 영원한 언니랍니다. 아마도 유니젠의 직원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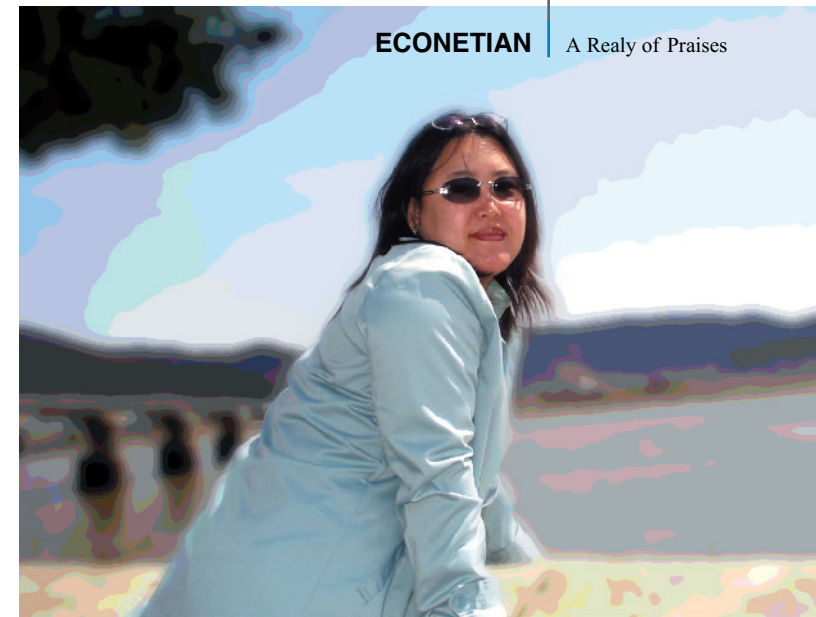
‘언니 올해는 꼭 조카소식 좀 들려주세요.’ 출산을 상속에 보탬이 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끝으로 칭찬릴레이에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니베라 중부영업팀에 이규남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such a truthful person.”

Haegyeong Shin

Assistant manger of the Sales Purchase Team at Unigen Korea.



By Eunjeong Kwak,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Support Team, Univera Korea

The 9th runner in a Relay of Praises is Haegyeong Shin, assistant manger of the Sales Purchase Team at Unigen Korea.

Because it is a relay, I can select only one person. Selecting and praising just one person from among the numerous outstanding ECONETIANs is a very tough job. I had to think really hard to make the right choice. As the 9th runner in a Relay of Praises, I would like to introduce Haegyeong Shin, assistant manager of the Sales Purchase Team at Unigen Korea.

It was in November 1992 that I first met Haegyeong. I remember the day I visited the Seongsu-dong office to be interviewed for a job with Namyang Aloe, now known as Univera Korea. I could never forget how Haegyeong handed me a drink and made me feel comfortable while I waited my turn to be interviewed. Later, I told her about that day, but she didn't actually remember it. Always being considerate of and caring for others... this is her usual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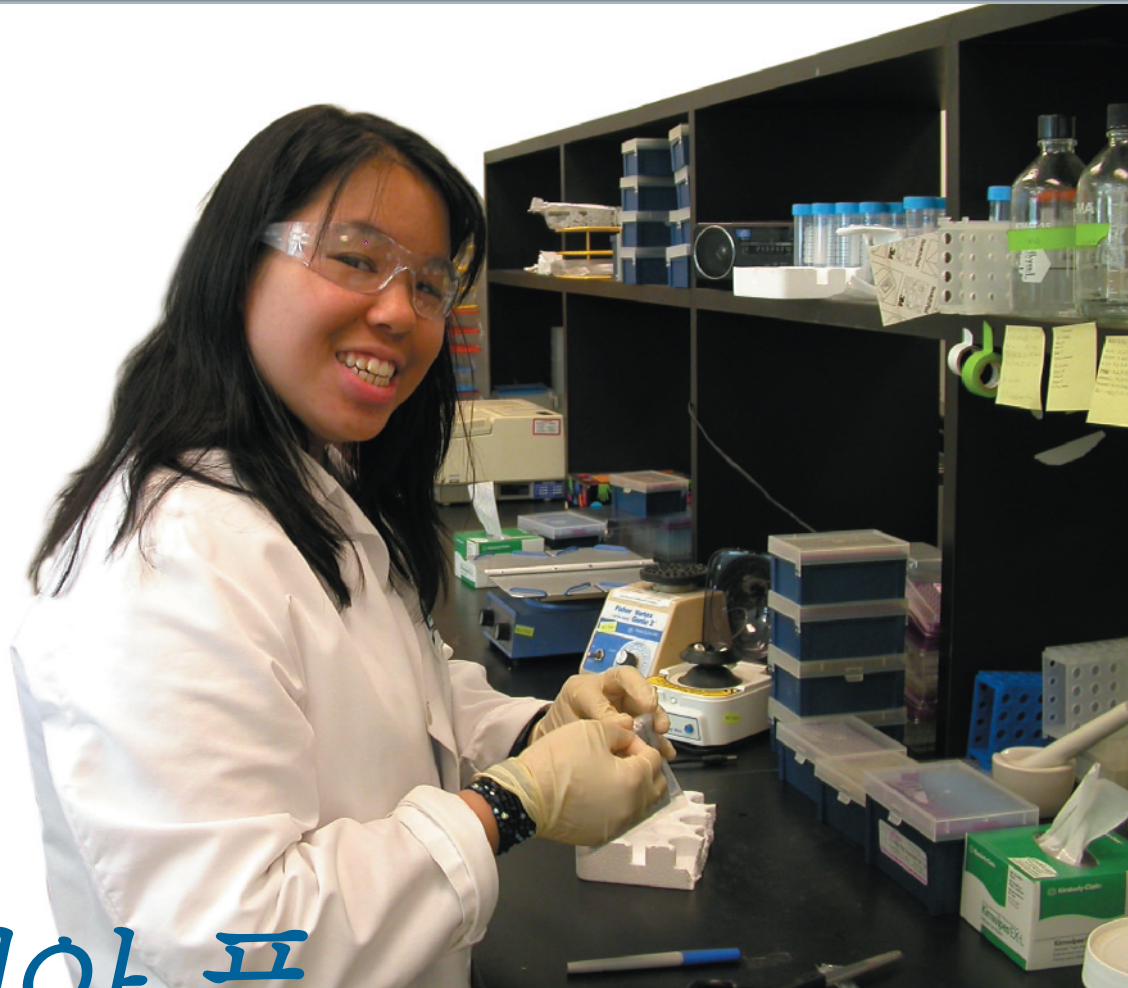
She currently works at Unigen Korea headquarters in Byeongcheon on weekdays and travels to Seoul on the

weekends to be with her husband. Nevertheless, she is meticulously managing her office life and home life in a sincere and responsible manner. She is truly an excellent career woman. Anybody who has ever talked to Haegyeong will agree that she is “such a truthful person.” As the eldest daughter in her family, she is a wonderful counselor to everyone around her. She is one of the few people you can approach comfortably without feeling any distance between you.

Although I don't get to see her often these days due to the distance between Univera Korea and Unigen Korea, she is and will be a big sister to me whom I can depend on spiritually forever. Many people at Unigen Korea probably feel the same way.

“Sis, I would be thrilled to have a new niece or nephew this year.” Here's hoping you will contribute to raising the birth rate in Korea this year.

Last but not least, I'd like to thank Gyunam Lee, Jungbu Sales Team Leader at Univera Korea, for giving me a chance to participate in a Relay of Praises.



줄리아 푸 미국 유니젠

재주 많고 친구 많은 여행자 줄리아

줄리아를 알아 가는 것은 유익하고 신비로운 책을 읽는 것과 같다.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이 있기 때문이다.

글 - 메이 흥, 과학자, 천연 제품부 / 유니젠 미국

줄리아 푸는 유니젠이 콜로라도에서 워싱턴 레이시로 이전하기 3개월 전인 2004년 6월 유니젠 Discovery and Screening 부서에 입사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차분한 몸가짐과 근면성 그리고 활기찬 발걸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레이시로 이전한 후 실험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

녀의 뛰어난 재능과 능력에 또 한 번 감동 받았다. 새로운 Discovery and Screening 실험실은 이전 실험실과는 달랐기 때문에 의자 및 각종 도구 배치가 큰 과제였는데 나는 종종 줄리아가 어지럽게 널린 의자들 속에서 치수를 재고 배치도를 구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가 목수에게 넘겨준 그림과 주문서는 매우 상세하고 명확했

기에 혹시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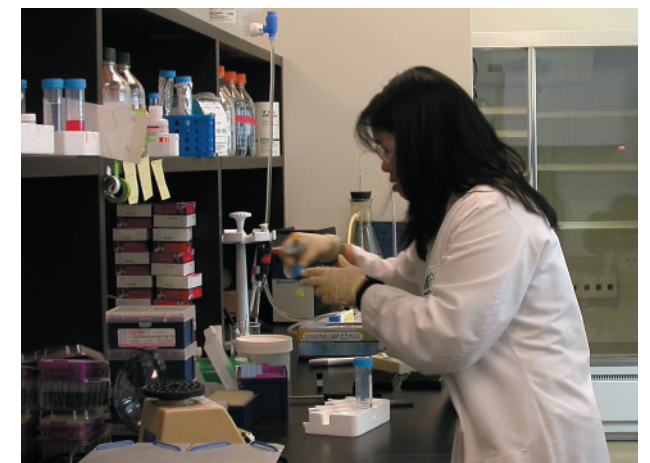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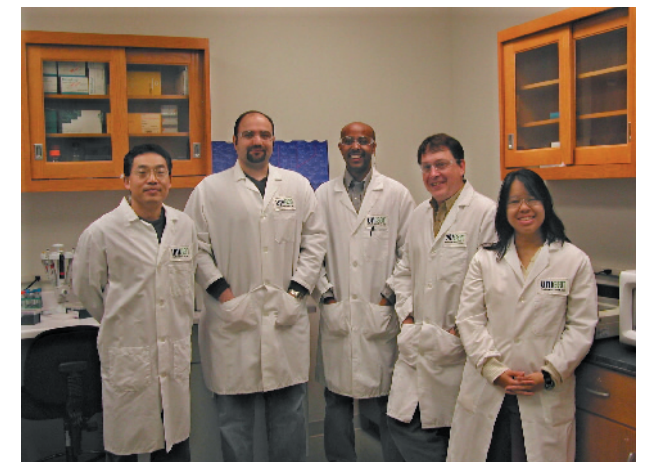
줄리아는 시공업자와 목수, 배관공, 전기사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 등과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녀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성격덕분에 시공업자와도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줄리아는 그녀의 계획을 바탕으로 각 담당자와 매우 능숙하게 협상해 나갔고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조금씩 실험실은 제 모습을 찾아나갔고 우리가 채 움직이기 전 그녀가 실험실 물품 공급 업체 및 페인트, 가스, 가스 폐기 서비스 업체 등 모든 실험실에 필요한 업체와 연락을 취했다. 이렇게 회사를 위해 효율적으로 그리고 항상 봉사하는 자세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줄리아의 모습이다.

줄리아는 항 당뇨 및 체중 감소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스크리닝을 최적화하기 위해 연구원들과 함께 근면하게 일해왔다. 그녀는 또한 끈기와 노력으로 약품 분석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줄리아는 두 프로젝트 모두를 위해 막대한 양의 식물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조사했다. 자신의 주 업무 이외에도 줄리아는 항상 동물 실험실의 실험을 도왔고 실험실 도구가 늘 준비되고 또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일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조용한 주말과 이른 아침 시간 조직 배양실에 남겨진 그녀의 흔적을 통해 무엇보다 잘 드러난다.

줄리아를 알아 가는 것은 유익하고 신비로운 책을 읽는 것과 같다.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척 예술적이고 창조적이며 만들기와 요리, 제과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분야에도 재능이 있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는 그녀의 미소를 돋보이게 하며 주위의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직접 만든 쿠키와 요리를 사무실로 가져올 때면 동료들의 하루가 그 하나로 인해 즐거워진다. 줄리아는 또한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싸인하도록 해서 전달하는 유머 넘치는 생일 카드와 안부 인사 카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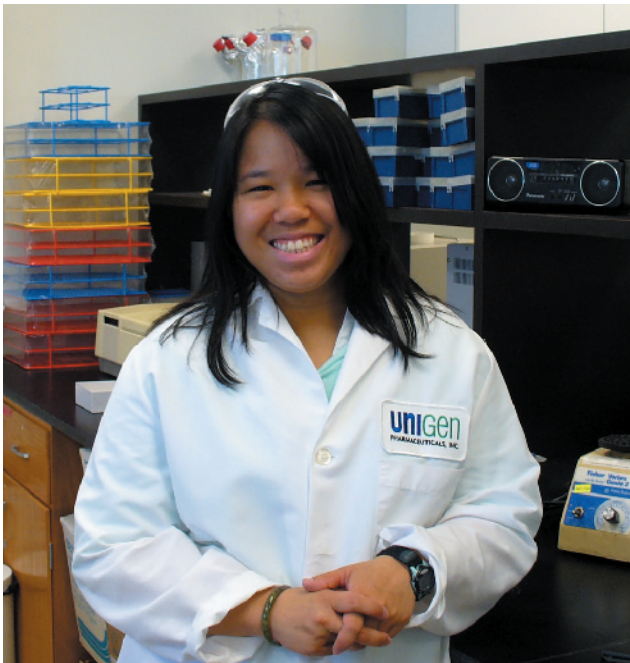
의 진실되고 사려깊은 성격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병원의 환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준다. 또한 그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는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 짝지어진 여동생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줄리아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을 즐기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한다. 우리는 그녀가 유람선에서 찍은 알래스카 해안의 모습에서부터 공중에서 내려다 본 숲이 멋을 뒀한 뉴질랜드의 모습 그리고 스카이다이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찍은 많은 사진과 비디오를 보아왔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뿌리를 찾기 위해 중국을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전해줄 새로운 모험담이 무척이나 기다려진다.



Julia Foo

Unigen USA



Many skills, many travels and many friends
Getting to know Julia is like reading a rich and mysterious scene book; as each page turns there are new impressions and surprises.

By Mei Hong, Scientist, Natural Products / Unigen USA

Julia Foo joined Unigen-Discovery and Screening group in June of 2004, three months prior to our company’s move to Lacey, Washington from Colorado. Although our interaction with each other was brief during this course in time, she immediately drew my attention with her quiet demeanor, diligent work ethic, and swift and brisk walk. During the new lab construction after our relocation to Lacey, I was further impressed by her talents and abilities. The layout of the new Discovery and Screening lab was much smaller and different from our previous lab. Therefore the placement of benches and instruments became quite a challenge. Julia was often seen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disarrayed benches,

busy taking measurements and making plans. The drawings and instructions she made for the carpenter was so detailed and clear that one would wonder if she was a professional designer. Julia played a key role in coordinating the logistics of the move with the contractors, movers, carpenters, plumbers, electricians, and field engineers. She established a rapport with the contractors with her easy going personality. She was energetic and eager to help them in anyway she could. She skillfully negotiated with each of them with her well thought out plans, kept them informed and in synchronized with each other’s time line. Piece by piece the lab came together beautifully. Before we had a chance to catch our

breaths, Julia took initiative and set up accounts with local lab suppliers, lab coat rental, gas rental, and gas disposal services for all the labs, and plunged herself into her experiments. This is the Julia I know, efficient and always ready to offer her services to the company. Julia has been diligently working side by side with the scientists to optimize screening methods for finding potential products for anti-diabetic and weight loss. She has been able to dramatically improve the sensitivity of the assays with her persistence and hard work. She has systematically and tirelessly screened the extensive plant library for both projects. Besides her main responsibilities, she always finds time to assist experiments in the animal facility, and works hard to keep the lab stocked and spotless. Her devotion to her work is inarguably further verified through her imprint left in the tissue culture room during the quiet weekends and early mornings hours. Getting to know Julia is like reading a rich and mysterious scene book; as each page turns there are new impressions and surprises. She is very artistic and creative, and talented in crafting, cooking, baking, and so many other abilities yet to be revealed. The lovely pieces of self-made jewelries she wears definitely brings out her smiling face and inspires so many people around her. The delicious and beautifully decorated cookies and dishes she brings to work cheers up everyone’s day. She is a caring and compassionate person in many ways. The humorous birthday and get well cards she initiated everyone to sign definitely warmed up our hearts and made us feel at home. Her sincere and considerate manner certainly brought sunshine to the patients in the hospital where she volunteered. Her positive and enthusiastic attitude would continue to inspire the little sister she was paired with for a volunteer program. Julia is risk taker, an adventurer, and a world traveler. We have seen many photos and videos of her adventures. From the crispy Alaska coast, a view from

her cruise ship to the breath taking bird’s eye view of New Zealand through her skydiving experience. At this very moment as I write this article, she is in China seeking to discover her family roots. I can’t wait to hear the stories of her new adventure.



독일 촬영팀과의 어드벤처 (2월 27일 - 3월 5일)

이제 촬영팀을 도와주는 우리 알로콧의 수준은 웬만한 프로덕션도 울고 갈 정도이다.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는 순간, 무슨 동작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동선을 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대충 몇 번 다시 찍을것인지를 아는것은 기본이다.

글 - 알로콧 생산관리 김수겸 상무, 기술지원팀장 환 살다냐



카메라는 이쯤 설치하는게 좋겠군! 텍사스 농장 촬영중
Let's put the camera right about here...! while filming at the Texas plantation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독일의 한 방송물 제작사인 Trifilm GmbH 사가 텍사스와 탐피코 농장을 방문했다. 유럽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있는 알로에 제품과 알로에 식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들은 독일 주요 방송사인 ARTE Public Franco-German Television의 제작승인을 얻은 후 여기 저기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를 수소문 하다 결국 세계최고의 알로에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에게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 애초에 우리는 촬영 협조만 하는 줄 알았었는데 실상은 주 촬영대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공이 된 셈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이 태산이다.

하지만 우리도 방송제작과 촬영이라면 결코 녹녹치 않은 경력을 자랑하지 않는가? 이제 촬영팀을 도와주는 우리 알로콧의 수준은 웬만한 프로덕션도 울고 갈 정도이다.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는 순간, 무슨 동작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동선을 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대충 몇 번 다시 찍을것인지를 아는것은 기본이다. 지난 2년동안 CF 촬영, 신화창조의 비밀, 체험 삶의 현장 그리고 올해 2월초의 영상물 제작팀의 촬영현장을 함께하며 어깨 너머로 익히고 닦은 알로콧만의 노하우를 이번에 독일에 서 날라온 다큐멘터리 제작사의 OPS팀과 호흡을 같이하며 나래를 활짝 펴봤다.

텍사스에서의 촬영은 실틈도 없이 진행되었다. 프로듀서인 타냐 (Tanya)는 7개월 된 임신부의 몸으로 모든 촬영을 뒤쫓아 다니는 열성을 보였고, 감독인 토마스 (Tomas)는 가냘픈 카메라 감독인 스베아(Svea)와 음향담당인 안케

(Anke)의 힘든 작업을 대견하게 쳐다 보며 분주히 장비를 옮겨다 준다. 대형 마켓안에서의 알로에 제품 쇼핑신, 남부 텍사스 시내 촬영신, 알로에 생산공정 신 그리고 개인 인터뷰등 불과 하루 반동안 숨가쁘게 몰아부쳤던 순간 순간들이었다.

이어진 촬영은 기술지원팀장 (Technical Support)인 환 살다냐 (Juan Saldana)의 안내로 바로 멕시코 농장으로 장소를 옮겨 설새없는 5일간의 대장정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래는 환 살다냐의 촬영기이다.

촬영팀을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평생에 못 잊을 일이 된 것 같다. 곤잘레스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국경을 넘은 후에도 족히 5시간은 더 달려야 했다. 일단 멕시코 땅에 들어서고 나자, 촬영팀은 텍사스와 사뭇 다른 분위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스베아가 카메라 가방을 끌어안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게 좁고 불편해 보여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제의했더니 카메라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곁에다 둔다고...

수요일에는 8시에 아침식사를 한 후 곤장 농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네스토 (Ernesto) 운영 담당 이사와 맥스 (Max) 농장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이날도 날씨가 폭풍 쪼다. 촬영팀은 알로에 잎을 수확하고 있는 농장 직원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스베아는 그 무거운 카메라를 가뿐하게 짊어지고 촬영 트럭 뒤에 짹째 올라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감독님, 그 휴지통을 치워줘요! (식품점 촬영중)
Tomas, could you please move that wastebasket! (while filming in a supermarket)

안케는 스베아만 따라다녔다. 촬영 트럭에 들어 타고나자, 운전자는 알로에 수확 현장으로 향했다.

촬영팀은 주변의 광장, 거리 등도 찍었다. 하루종일 실틈없이 힘들고 무더웠지만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식사도 틈날 때 마다 대충 때웠다. 주변에 식사할 때가 마땅치 않았는데 식성들이 모두 무뎌서 너무 다행이었다. 거리에서 파는 타코도 사 먹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때웠다. 마지막 날에는 탐피코로 이동하여 좀 근사한 것을 대접하기로 했었는데, 촬영팀은 너무 피곤하다며 다음날 라이포드로 돌아가기 전에 좀 쉬고 싶다고 사양했다. 일요일도 고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침 7시에 출발했지만 라이포드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넘어서였다. 돌아오는 길에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오는 내내 아무 것도 먹지도 못하고 라이포드에 도착해서야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국경을 통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함께 있던 여인들 덕택이었던 듯싶다.

촬영을 위해 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는 옆에서 직접 보지 않고는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가까이 옆에서 지켜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다.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제대로 될 때까지 타냐, 토마스, 스베아, 안케의 태도는 확 달라졌다. 라이포드에 도착한 후에는 김수겸 상무를 만나, 멕시코에서 운송해온 알로에의 하역 장면을 촬영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김수겸 상무와 함께 맥앨런으로 향했다. 아마도 이번 일은 내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어드벤처로 오래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Adventure with the crew from Germany (2/27-3/5)

The people at Aloecorp are nearly professionals in working with the camera crew. The moment a director stops filming, we know what went wrong and what he would like to capture in the scene. We also have a pretty good idea how many times we will have to do a retake.

By Joseph Kim, COO / Juan Saldanda, Technical Support

From February 27 through March 5, Trifilm GmbH, a German film company, visited the Texas and Tampico plantations to produce a documentary on aloe plants and products, which are steadily gaining popularity in Europe. After obtaining production approval from ARTE Franco-German Public Television, a major broadcasting company in Germany, Trifilm sought companies that could assist them. They ultimately decided to contact us, as we have the world's best aloe plantations. We initially thought that we would simply provide some assistance. However, as it turned out, we were leading characters in the film. I am really anxious

to see the end result.

As far as broadcasting and film is concerned, we are not exactly amateurs. The people at Aloecorp are nearly professionals in working with the camera crew. The moment a director stops filming, we know what went wrong and what he would like to capture in the scene. We also have a pretty good idea how many times we will have to do a retake. Over the past two years, we have gained experience through the filming of commercials and of Secrets Behind the Creation of a Legend and Experience the Life, and by working with a

film production team in early February this year. While working with the OPS team of the German documentary producer, we were able to demonstrate the unique know-how gained by watching other people.

The Texas shoot continued around the clock. Tanya was an enthusiastic seven-month pregnant producer, and followed every scene. Tomas, a director, was content with and felt proud of the hard work of Svea, a slender camera operator, and Anke, an audio crew member, and kept himself busy by carrying equipment for them. A close-up scene of aloe products in a large supermarket, a scene introducing a city in southern Texas, a scene showing the aloe production process and individual interviews... all these were completed in just a day and a half. The schedule was hectic throughout their stay.

Then the crew was guided by Juan Saldana, Technical Support Team Leader, to our plantation in Mexico and began a tightly scheduled five-day expedition. The following is Juan Saldana's story of her experience with the crew.

This was my first time I doing this, and it was an experience I will never forget. It was a good five-hour drive into Mexico to get to Gonzales. Once in Mexico, the crew started noticing how different it was from Texas. I noticed that Svea had her camera with her, and it was crowded in the back seat. I suggested we put the camera in the back so as to have more room, but she said the camera stays with her wherever she goes. Even when she goes to sleep she keeps it at her side. On Wednesday the day started at 8:00 AM with breakfast and heading to the plant. There we met with Ernesto (director of operations) and Max (the farm manager). It was a hot day like always. The crew started filming the workers harvesting the leaves. This woman is very acrobatic in getting on top of the truck to film, and carries the heavy camera with her like it is nothing. Anke also went wherever Svea went. After loading the two ladies into the truck to film, the driver took them

along with him to pull leaves from the field.

We filmed at the plaza, on the streets and off the main street. The days were long and hot, but this didn't seem to bother them at all. We ate when we had time and ate whatever there was. They weren't particular about the food they ate, and this was a big plus because there aren't very fancy restaurants nearby to go to. We ate at taco stands and whatever was around. On the last day we were supposed to treat them to a meal in Tampico, but they were tired and wanted to rest up for the trip back to Lyford. Sunday was no picnic either; we started at 7:00 AM and didn't get to Lyford until after 3:00 PM. They were still filming on the way back. We didn't eat anything until we got to Lyford. We didn't have any problems passing through customs, maybe because of the ladies who were with me. You would have to know them to really get a feel for what they went through to make a film. It was very exciting and interesting to get to know this film crew. Tanya, Thomas, Svea and Anke were something else when it came to getting the right shot. We met Joseph at Lyford and finished filming the unloading of the shipment from Mexico. We said our goodbyes and they left with Joseph for McAllen. This will be one adventure that I will not forget for a long time.



모든 촬영을 끝내고 나서
타냐 (Producer) / 안케 (음향감독) / 토마스 (감독) / 환 살다냐 (알로코프 직원) / 스베아 (촬영감독)
At the completion of filming
Tanya (Producer) / Anke (audio crew) / Tomas (director) / Juan Saldana (Aloecorp staff) / Svea (camera operator)

자, 다음 촬영지로 이동합니다. (멕시코 농장 촬영중 토마스 감독)
Well, let's move to the next location. (Tomas while filming at the Mexico plantation)

에코네시안 하나되기 블루다이아몬드가 이스트 에코네시안을 만났을 때

이번 아시아 방문은 나로 하여금 우리 에코넷만의 문화와 사람들의 가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글 - 유니베라 미국 영업담당 부사장 리치 라즈가이티스



한국 에코넷센터 꿈꾸는 정원에서
In the garden of dreaming at Korea Econet Center



유니젠 한국 아트리움 앞에서
Unigen Korea In front of the atrium

지난 4월 유니베라 미국 블루 다이아몬드, 필드 리더십 회의 그리고 회사 임원들은 유니베라 한국의 30주년 창립 기념일에 초대 받았다. 이는 창립 기념 축하와 더불어 중국과 한국에 있는 유니베라 가족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모든 일을 도맡아준 조준용 차장의 환영을 받으며 토요일 한국에 도착했다(이번 방문을 준비해준 줄리 다비와 이주연 팀장에게도 또한 감사드린다.) 도착한 다음 날은 화창한 부활절 일요일이었다. 우리는 서울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하얏트 호텔에서 아시아 전통 요리를 맛보았다.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 생산시설을 보다.

다음 날은 남양 공장에서 캡슐부터 용액까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돌아보았는데, 이는 이제

까지 내가 본 중 가장 훌륭한 건강 기능 제품 생산시설이었다. 우리가 공장을 돌아보는 동안 유니베라의 대표적 제품이라 할 수 있는 Ageless Essentials이 마침 최신 초고속 라인 위로 생산되고 있었는데 한국측 담당자는 우리가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작업대에서 갓 생산된 제품 샘플들을 건네 주었다.

유니젠 방문을 통해 밝은 ECONET의 미래 확인하다.

유니젠 한국의 리더들에게서 미래 신제품 개발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었던 유니젠 방문은 무척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약초를 구분해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식물학자들과 협력하고 있고 유니젠의 정교한 감별 과정과 분석법으로 해당 약초의 성분을 파악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상용화되는 모든 제품들은 특허로 보호될 것이며, 이 제품들의 혜택은 천연 제품 시장은 물론 다음 세대의 삶에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유니베라 코리아의 30주년 기념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기념식에는 25,000명에 달하는 유니베라 가족들이 참석했는데 당시의 경기장의 열의와 흥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중 몇몇사람들은 언제쯤이면 미국에서 열리게 될 컨벤션에도 이처럼 많은 관중이 모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신나는 일이겠지만 사람 수가 얼마가 되건 간에 우리가 여기서 보았던 것과 같은 정신과 열의 그리고 고객을 섬기는 태도를 우리 컨벤션에서 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첫번째 바람이다. 이번 한국 방문은 우리가 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Associate들과 더불어 우리만의 문화를 가꾸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지만 나에게 이번 여행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돌아가신 유니베라 창립자이고 이연호 회장님 묘소를 방문할 수 있었던 점이였다. 또한 이병훈 사장이 들려준 그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 내용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그 대화 내용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간의 정신적 결속과 그들이 그들의 비전에 대해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맛있는 식사와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던 청강대학 방문과 (그 중에서도 김치를 결코 잊을 수 없다!) 한국과 홍콩에서의 쇼핑, 하이난 섬의 들판을 거닐었던 일도 기억에 남는데 특히 하이난 섬에서는 알로에를 직접 심고 수확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남중국해에서 수영도 할 수 있었으며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고급 베라스파도 엿 볼 수 있었다.

에코넷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전 세계 어떤 천연 제품 회사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수직계열화 체계가 알로에 씨앗부터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는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수직적 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관찰함으로써 “농장에서 가정까지”라는 우리의 약속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물론 에코넷의 자원과 역량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에코넷의 문화와 결

합된 자원은 우리 각자가 미래에 무언가 진정으로 의미있는 것에 공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번 아시아 방문은 나로 하여금 우리 에코넷만의 문화와 사람들의 가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에코넷의 일부가 되는 것은 특권이며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 그리고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에 감사해야 한다. 에코넷 창립자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굳은 약속이 필요하다. 리더십 그룹으로서 특히 블루 다이아몬드와 FLC 그리고 유니베라 미국 가족 모두는 이 과정에 있어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즉 서로에게 진실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감사하며...

끝으로 이번 아시아 방문에서 우리를 위해 애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서번트 리더십과 우리에게 보여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여기에 쓸 수 없는 것이 정말 유감이다. 더불어 유니베라 미국과 Field Leadership의 팀원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의 기회를 주었으며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여준 이병훈 사장과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리며 나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인류에게 최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에서 개인의 최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고 이연호 회장님 묘소에서:
In the graveyard of Founder and Chairman Yun Ho Lee

ECONETIANs coming together

When Blue Diamonds met East ECONETIANs

This trip reminded me that we must never forsake our culture and people in exchange for business profit, revenue, or anything else.

By Rich Razgaitis (EVP , Sales & Marketing, Univera LifeScineces)

This past April the Univera USA Blue Diamonds, Field Leadership Council, and Executive Staff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30th year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birth of Univera Korea. In addition, this opportunity provided us with a unique perspective to learn more about our brothers and sisters globally while also celebrating.

Upon our arrival Saturday, our entire team was greeted with the tireless energy of Alex Cho who facilitated our entire Korea visit (thanks also goes to Julie Darby and Serah Yi who were both heavily involved in planning this trip). The next morning we were greeted with a brilliantly sunny day to celebrate Easter followed by a delicious meal of traditional Asian cuisine at the Hyatt overlooking downtown.

The following days included tours of Namyang Manufacturing where we observed a world-class facility proficient in making everything from capsules to liquids.

This is the most impressive dietary supplement manufacturing facility I’ve ever seen. As we toured the facility, we witnessed our own prized Ageless Essentials running on the new high speed lines, and our gracious hosts pulled samples of the products fresh off the assembly lines for our refreshment.

Our tour of Unigen Pharmaceuticals inspired the team as the Unigen leadership outlined the pipeline of products for years to come.

We learned about the approach of working with Ethno botanists worldwide to identify medicinal plants, and the sophisticated screening and analytical tools utilized by Unigen to identify and develop those plant fractions and ingredients. It was emphasized that products selected for commercialization will have both patent protection and unique benefits that will continue to transform the natural products marketplace and peoples lives for generations to come.

The 30th celebration of Univera Korea raised our

enthusiasm to a new level. We were greeted at the celebration in the Daejeon World Cup stadium with open arms. As we participated in the celebration we observed the 25,000 Univera attendees in utter amazement. What energy and excitement! Some in our group were discussing how soon we might be able to have that many attend our National Convention. While I’m excited for this as well, it is my primary hope that however many we have at our convention comes with the same type of spirit, passion, and heart of servitude that I observed from our Korean friends at Univera. This trip to the 30th celebration reminded me of the importance of how we build culture with our own team, both corporate staff and also Associates.

The most touching part of the trip for me, as well as to many others in our group, was the privilege of visiting our late Chairman’s burial grounds.

It was especially moving and inspiring listening to Bill’s share the conversations he had with his father. Bill’s conversations with his father disclosed a special bond between a father and son and their commitment to their extraordinary vision.

Other memorable experiences included a tour of Chung Kang College with its’ many wonderful meals and introductions to new types of food (I miss the Kim Chi most!), shopping in the Korean and Hong Kong markets, walking the fields of Hainan Island which included planting and harvesting Aloe, and even swimming in the South China Sea. We were even able to glimpse into the ultra-luxurious VeraSpa now under development.

The available resources to ECONET are outstanding, far exceeding those of any other natural products company in the world.

We learned firsthand that our vertical platform ensures quality from the seeds we plant in the fields to the final product consumed by each of our customers. The powerful experience of visually seeing all aspects of our vertically integrated system inspired confidence in our “farm to family” commitment. The resources and capabilities of ECONET alone are amazing. However,



남양 견학중에
During a visit of inspection to Namyang Company

these resources tied to our culture truly opened my eyes to an opportunity for each of us to contribute to something incredibly meaningful over the coming years.

This trip reminded me that we must never forsake our culture and people in exchange for business profit, revenue, or anything else.

Being part of ECONET is a privilege and we must honor this privilege by providing each other with trust, respect, and a listening ear. In order to create the culture that will honor and represent our late Chairman, as well as each other, it will take hard work and commitment. As a leadership group, particularly the Blue Diamonds and FLC as well as all of Univera USA team members, it’s critical that we lead by example. The only way we can do this is to literally sacrifice our selfishness and to commit towards treating each other with respect, compassion, and love while giving each other our “highest and best.” As I have learned it means showing each other transparency while holding each other accountable.

In summary, I choose to express appreciation and commitment to all of the wonderful people who served us on our trip to Asia. I wish I could list each of you by name and thank you personally for the exhibition of Servant Leadership and hospitality to each of us. My appreciation also extends to my friends and teammates at Univera USA and our Field Leadership. I appreciate all of you all. Finally, I’m thankful, grateful, and deeply committed to both Bill and his late father for the opportunity of this trip and the promise of a bright future. With everyone’s help, we have a chance to be our own personal best within a company that also seeks the best for mankind.



경복궁에서
In Gyeongbokgung (Gyeongbok Palace)



하이난 알로콕에서
During a visit of inspection to Hanin Aloecorp

리제니케어·K™

나이 든 관절에 새 잎을...



황금(黃耆) 황금은 꿀풀과(Labiat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서 황금의 뿌리에는 염증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 세기 전부터 중국, 일본에서 염증 및 골증 장애 치료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니베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황금에 염증억제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관절기능개선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 했다.

나이 든 관절에 생기를 불어넣자!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만성 질환 발병률이 54.4%이고,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는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관절염은 노령 사회의 도래로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노화현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마모 현상 및 파괴로 인해 연골 아래의 뼈가 노출되어 부종과 함께 관절이 굳어지면서 꺾임이 부드럽지 못해 점진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현재까지 관절염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제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주로 사용됐으나, 이는 장기간 복용 시 소화 장애, 위장관 장애 등 전신적인 부작용을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관절염의 치료제로서 진통 및 소염 작용이 우수하면서 부작용이 극소화된 뿐만 아니라 관절 및 연골 손상 억제와 보호 효과가 있는 새로운 제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식물성분 관절건강기능식품 '리제니케어·K'

글로벌 천연물기업 유니베라의 제1호 제품인 '리제니케어·K'는 관절기능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제품은 천연식물 황금(黃耆, Golden root)과 아선향 추출물을 혼합해 개발한 '유니베스틴케이(Univestin K™)'를

주성분으로 한다. '리제니케어·K'는 국내 최초의 식물성분 관절건강기능식품으로 시험관실험, 동물실험은 물론 일부 인체시험을 거쳐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식약청에 제출,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별인정을 획득하였다. 특히 서울의 유명 대학 병원에서 관절이 불편한 40~75세 남녀 139명을 대상으로 인체시험을 한 결과 관절 건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뻣뻣함(stiffness) 개선에 있어서 우수한 효능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 유니베라의 국내최초 식물성분 관절건강기능식품 '리제니케어·K'는 지난 4월 말 출시했다.



글 신은선

식물에서 찾은 건강한 관절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예전같지 않은 관절, 유니베라가 당신의 관절에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국내최초 식물성분 관절건강기능식품-리제니케어·K. 과학적인 검증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리제니케어·K가 부드럽고 편안한 관절을 되찾아드립니다.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인체시험을 통해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유니베라가 수년간 연구하여 특허를 획득한 성분으로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 받은 제품입니다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성분을 좌식생활을 하는 한국인에 맞게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univera
유니베라



자연의 능력을 키워...Heal the World
유니베라는 천연물 연구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무 료 상 담 전 화
080-022-7575



유니베라의 천연물 데이터 베이스 '파이토로지스 (PhytoLogix)'

유니베라는 전세계 천연물에 대한 다양한 활용 정보와 효능·효과를 보이는 유효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천연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유니베라는 천연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효성분을 초고속으로 분리·추출하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 가능성이 뛰어난 신제품을 정확하고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자연의 능력을 키워...



Heal the World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건강한 치유의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유니베라의 이름으로 자연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니베라의 이름으로 자연이 당신을 새롭게 사랑합니다. 만나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이름-유니베라입니다.

univera
유니베라

자연의 능력을 키워...
Heal the World —
유니베라는 천연물 연구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무 료 상 담 전 화
080-022-7575



◀ Baikal skullcap

Baikal skullcap, a perennial plant belonging to the Labiatae family, is also known as Chinese skullcap or golden root. The plant root contains ingredients that are highly effective at treating inflammation-related disorders and has for centuries been used in China and Japan to cure inflammatory diseases and bone diseases. Using its proprietary technology, Univera scientifically identified Baikal skullcap's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developed it into a functional health supplement that helps improve joint function.

Revitalizing aging joints!

According to 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54.4% of adults over 20 suffer from a chronic disease. Among leading diseases are arthriti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The incidence of arthritis in particular is mounting in today's aging population. In the case of degenerative arthritis caused by aging, the bones normally sheathed by cartilage are exposed as a result of wear and tear and the deterioration of cartilage in joints. Along with swelling, stiffened joints cause discomfort. The mobility of joints diminishes and a disability is developed over time. Non-steroid, anti-inflammatory painkillers are usually used to ease inflammation in joints, but when these are taken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can cause side effects affecting the whole body, such as digestive and gastrointestinal disorders. Therefore, there is an acute need today for a new arthritis treatment that offers effective pain-control and prevention of inflammation while minimizing side effects as well as curbing the destruction of and protecting joints and cartilage.

RegeniCARE · K, a phyto-sourced functional health product for joint health

RegeniCARE · K, the first product by global natural product

company Univera, is a functional health supplement for improving joint function. The main ingredient of the product is Uninvestin K™, a substance developed by combining Baikal skullcap (golden root) and gambir extracts. RegeniCARE · K is Korea's first plant-sourced functional health supplement for joint health. After completing laboratory testing, animal testing and clinical studies involving people, a scientific base for the functionality of RegeniCARE · K has been submitted to the KFDA. The product successfully obtained KFDA approval as a product that may promote joint health. A clinical study conducted by a leading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of 139 people between the ages of 40 and 75 who experience joint discomfort showed that the product is highly effective at improving stiffness,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indicators of joint health. RegeniCARE · K, the first functional health supplement for joint health created by Univera, was launched in late Apr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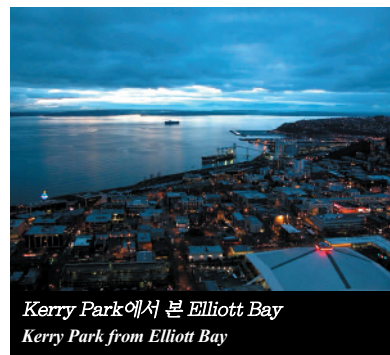
Univera's Natural Product Database, PhytoLogix

Univera has built a database of natural products by collecting information from around the world on their various uses and of active ingredients demonstrating efficacies and effectiveness. Univera is also able to develop highly functional new products quickly and precisely by utilizing its state-of-the-art technology to rapidly separate and extract active ingredients from natural plants.

시애틀에 오시거든 여기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글 – 김미선 (ECONET, ERP System Analyst)

영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으로 유명한 물의 도시 시애틀. 일년중 6개월이나 비가 오고 지도에서 보듯이 만, 해협에 호수까지 물 풍년이다. 영화 때문인지 웬지모르게 로맨틱한 이 도시를 구석 구석 찾아 다니는 재미도 솔솔하다.



Kerry Park에서 본 Elliott Bay
Kerry Park from Elliott Bay



Kerry Park 에서 본 Space Needle
Kerry Park photographed from Space Needle

이 정도 되면 출출한 배를 안고 꼭 가 봐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Pike Place Market. 부둣가와 연결되는 이곳은 준비하게 늘어진 식당가며 세계 방방곡곡에서 바다 건너온 특색 있는 물건과 색다른 수공예품등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활



기 넘치는 거리다. 이 곳은 생선 시장과 Starbucks 1호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날아다니는 생선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 잡기에 충분하다. 배도 채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부두로 내려가 유람선을 타며 휴식을 취한 후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Alki Beach로 향해보자.

Alki Beach는 시애틀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경이 멋있어 최고의 데이트 코스이다. 아직 싱글인 여러분들을 위해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하다.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온 여행 알차게 보내야 된다는 지론으로 성격 급한 우리식 관광법을 소개한게 아닌가 싶다. 위에 소개한 곳 말고도 아기 자기한 곳들이 시애틀과 도시 주변에 보물처럼 숨어 있어 느긋이 럭셔리한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추억 만들기에 좋은 도시임에는 틀림없다.

누가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 밖에 없다고했던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가끔 생활에 지칠 때 열어보는 나만의 특별한 보물 상자를 가질수 있을 것이다.



베스트 셀러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의 배경인 어시장
The Fish market, the background of ‘Fish! A remarkable way to boost morale and improve results’



Alki Beach에서 본 시애틀 다운 타운
Downtown of Seattle viewed from Alki Beach

Must - to - see places in Seattle!

Written by Misun Kim (ECONET, ERP System Analyst)

Seattle, the city of water and famous for the film “The Sleepless in Seattle” has rain for almost half of a year and filled with water as you can see on the map below. It may be due to the movie but it gives real pleasure for visitors to venture the romantic city.

Let’s start with Kerry Park which has clear view of the entire city. It is located in the north of Seattle and enables people to look out the famous tourist spots like Space Needle, Elliott Bay, Alki Beach and others.

Seoul has Namsan Tower and Seattle has Space Needle. It is only 5 minutes away from the Kerry Park and the view from the observatory is so beautiful. You can enjoy romantic atmosphere at the tower restaurant, which rotates 360°. Or a cup of coffee will be good out in the observa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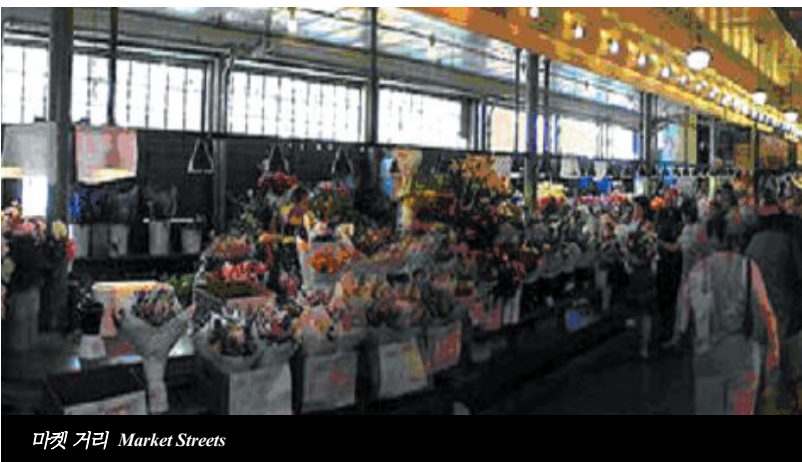
I guess you must be hungry by now and it is time to move on to Pike Place Market that is connected to quay. With the restaurant streets and exotic handicrafts from abroad, the market is full of things to see and eat. Seattle is famous for its fish market and the first Starbucks store opened. Flying fish, in particular, is enough to grab the travelers’ attention. Now let’s head to Alki Beach, the last of today’s tour course.

Alki Beach, placed in the western Seattle, is told the best spot for couples because of its beautiful night view. If you are a single, I totally recommend this beach.

I may have introduced all those places in a rush thinking that this Seattle tour should be worthwhile given the money

and time you spent. Seattle, however, has many other spots good for travelers and it certainly is also a perfect place for those who want relaxed luxury trip with taking as much time as they want.

Some say that we can remember the trips only by photographs we take. If you return home with the precious memories shared with good people that will provide you a special jewel box of your own which you can open up whenever you are worn out.



마켓 거리 Market Streets

5월 6일 *ECONET East, West* 친선도모의 현장 포착

인터뷰 - (주)유니베라 한국 마케팅본부 고객지원팀 박정아 팀장 / 기자

5월초 에코넷 CEO meeting이 있었던 주말에 ECONET EAST와 WEST 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골프 시합이 있었다. 알로corp 사장인 피터 호프만, 유니젠 미국 리건 마일즈 사장,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의 성한용 사장, 유니베라 한국의 김영환 사장이 WEST팀(스튜어트 사장이 불참하여 유니베라 김사장이 WEST팀 소속됨)에 남양 김영태 사장, 유니젠 한국 김동식 사장, 유니베라 한국 정찬수 부사장, 남양 이시찬 상무가 EAST팀에 속해 유쾌하고도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 시합에는 이병훈 총괄사장님께서 준비하신 금일봉과 트로피가 부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프로 골프 선수를 능가할 만한 실력가들의 경합은 전반에 WEST팀이 5타 앞선 상태였지만 EAST팀의 분발로 후반을 넘기면서 7타차로 EAST팀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 팀 경기보다 놀라웠던 개인 점수는 리건 마일즈 사장의 7오버 파로 Daily Best의 영광을 안았다. 리건 마일즈 사장은 연속 버디를 기록해 골프장에서 선물하는 와인을 마시는 영광도 누렸다.

참가자들은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WEST팀이 익숙지 않은 클럽이나 골프장 등의 악조건에서 선전을 보였으나, 다음에는 WEST에서 EAST팀이 같은 조건으로 시합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다음 시합을 예약하기도 했다.

업무에서는 물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EAST와 WEST가 하나되는 화합과 친선의 모습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리건 마일즈의 환상적 버디 샷
A fantastic birdie shot by Regan Miles



오늘 멋진 시합 한번 해 봅시다. Let's play a terrific game today!

Promoting Friendly Ties between *ECONET East and West* on May 6

Interview - Jeong Ah Park, Customer satisfaction Team Manager, Marketing, / Korea / Reporter

During the first weekend of May, when the ECONET CEO meeting was held, ECONET East and ECONET West took part in a golf match to promote harmony and friendship. The West Team consisted of Peter Hafermann, CEO of Aloecorp; Regan Miles, president and COO of Unigen USA; H.Y. Sung, president and CFO of ECONET Inc.; and Young-whan Kim, president and CEO of Univera Korea (Stuart Ochiltree was unable to take part in the game, so Youngwhan played for the West Team in his place). The East Team comprised Youngtae Kim, president of Namyang; Dongsik Kim, president and CEO of Unigen Korea; Chansoo Chung, vice president of Univera Korea; and Sichan Lee, Vice president of Namyang. The match was intense but full of fun and enjoyment. Bill Lee offered a special cash bonus and a trophy to the winning team.

In the match between golfers competent enough to play as professionals, the first half ended with the West Team leading by five strokes. However, the East Team surged

ahead in the second half and clinched a victory by seven strokes. As for individual scores, which were more impressive than the team match, Regan Miles shot seven-over-par and enjoyed the honor of being selected as the Daily Best. In fact, he birdied two consecutive holes and was presented with a bottle of wine by the golf course.

The participants all agreed that it was a fun and memorable occasion. The West Team played well despite unfavorable circumstances, including unfamiliar golf clubs and courses. The two teams made plans to play again in the future, agreeing that it only would be fair for the East Team to play under the same conditions on the West Team's turf next time.

We hope to have more occasions for harmony and friendship through which East and West can build ties and come together in work as well as in culture.



하나된 두팀 The two teams together



East와 West간의 친목 뒷풀이: A friendly get-together between East and West after the game

에코넷 30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ECONET EAST의 3사 300명의 임직원들은 지난 4월 5일 청강문화산업대학에 모여 성공적인 ECONET의 30주년을 자축하고, 미래 30년을 기약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전 이병훈 ECONET 총괄사장을 비롯한 각사 사장, 임원 및 팀장들은 ECONET 창립자인 고 이연호 회장님 묘소를 참배하고 에코넷의 성공적인 30년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ECONET 30년 역사를 회고하는 사진의 슬라이드가 상영되었고, 고 이연호 회장님에

대한 묵념, 이병훈 총괄사장의 기념사, 신임 사장 및 부사장, 임원 임명장 수여가 이어졌다. 2006 월드컵 응원무인 꼭지점 댄스로 몸을 풀고 시작된 2부행사는 다양한 실내외 체육행사로 구성되어 한동안 함께 만나기 어려웠던 에코넷 EAST 전 ECONETIAN들이 서로 몸을 부딪치며 우의를 다졌다.

한편, 행사가 열린 청강문화산업대학은 고 이연호 회장이 지난 1996년 인재육성을 위해 경기도 이천에 설립한 학교로서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고 있다.

Hanmaeum Sports Day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ECONET

On April 5, over 300 staff members from the three ECONET East companies gathered together at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to hold a significant event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uccessful ECONET and committing themselves to another 30 great years. Prior to the start of the formal event, ECONET CEO Bill Lee and the CEOs, executives and team leaders of all ECONET East companies paid their respects at the grave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the founder of ECONET, and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ECONET's 30 years of success.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event, held in the student gymnasium, slides looking back on the 30 year history of ECONET were shown. This was followed by a silent tribute in honor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a congratulatory

message from CEO Bill Lee and the presentation of letters of appointment to new CEOs, vice presidents and executives. The second portion of the event kicked off with kkokjjeom (vertex) dance, an official dance among Koreans for the 2006 World Cup Games. As the program consisted of various indoor and outdoor sports activities, it was a good chance for all the ECONETIANs of ECONET East to enhance their friendships by literally running into those they had not seen for a while.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the venue for the event, was established in Icheon by the late Chairman Yunho Lee in 1996 to cultivate talented human resources. The school will be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고 이연호 회장님 묘소 참배 Paying respects at the grave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나 이빠? Aren't we just lovely?



판짚하지 말고 응원 좀 하소 Hey guys, pay attention to cheering the players on!



림보게임의 달인 (췌)남양 신범순 사원 The master of limbo, Beomsoon Shin from Namyang



앗싸! 앗싸! 이겨라 파이팅! Go! Go! Go!



에드블론 굴리기 Rolling an advertising balloon



에코넷 30주년 기념떡 A rice cak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ECONET



에코넷 창립 30주년 기념 커팅식 A rice cake - cutting ceremony for ECONET's 30th anniversary



영차영차 줄다리기 Tug of war



왜 이렇게 발이 안 빠지지 (장애물 경기) What's taking so long?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헛돌! 허돌! 2인 3각 경기 One - two, one - two (A three-legged race)

유니베라 30주년 기념 행사



총괄 사장님 환영사
A welcome message from Bill Lee



서번트 리더십 스피치
Servant leadership speech by Stuart Ochiltree

남양알로에의 30주년과 새로운 사명인 유니베라로서의 시작이 되는 의미있는 행사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손범수, 진양혜 부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유니베라 전진대회’라 명명된 이 행사에는 국내외의 귀빈과 대리점 사장님들, UP(univera Planner)님들을 포함하여 총 2만5천여명과 이를 취재하려는 취재진까지 합세하여 장관을 이루었다.

행사는 유니베라 한국의 새로운 사가인 ‘For Future’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고 이연호 회장님에 대한 추모, 이병훈 총괄 사장님 환영사 및 내외빈 축사, 새로운 회사명과 CI 선포, 유니베라 가치선언 및 배지 전달식, 신제품 리제니케어K의 Launching 행사로 이어져 우수 대리점 및 UP시상식 등에서 절정을 맞았다. 2부인 행사에서는 국내 유명가수인 인순이, 이문세, 태진아 등이 열광적인 축하 공연을 펼쳐 갈채를 받았다.

한편, 행사 당일 갑자기 몰아친 비와 강풍의 악천후 속에서도 담요를 나눠가며 몰아치는 빗줄기와 추위와 싸우면서도 열광적인 응원과 호응을 보내주시던 UP님들의 모습은 거처른 영업현장에서의 치열함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옮겨 놓은 듯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아래는 행사당일 발표된 유니베라의 가치선언이다.

1. 우리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한다.
2. 우리는 인류에게 자연의 혜택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한다.
3. 우리는 인류와 유니베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한다.



신 CI 선포식 New CI declaration ceremony



유니베라 사가 합창
Singing the Univera company song in unison



서울대 이승기 학장 축사 A congratulatory message from Seunggi Lee, Dean of the College of Pharmacy at SNU



블루 다이아몬드들도 함께 한 뜻깊은 자리 Another significant occasion the Blue Diamonds joined in



Univera Korea's 30th Anniversary Event



유니베라 가치 선언 및 뱃지 전달식 Announcing the Univera value propositions and awarding Univera badges



유니베라 시상식
Univera awards ceremony



미국 유니베라 테렉홀 사장이 UP 자녀 미국 현지법인 연수권을 전달하고 있다.
Derek Hall, Vice Chairman and CEO of ECONET, delivers a certificate granting a child of a UP an internship at one of ECONET West companies.

A very significant event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Namyang Aloe and its new beginning under the new name Univera Korea was held at Daejeon World Cup Soccer Stadium. The masters of ceremony were Beomsoo Sohn and Yanghae Jin, who are both famous announcers in Korea and are married to each other. Called Univera Korea Rally, the event was a magnificent spectacle jam-packed with over 25,000 participants, including VIP guests from Korea and abroad, heads of agencies and Univera Planners, as well as members of the press trying to report on the event.

The event began by learning how to sing For the Future, the new company song of Univera Korea. This was followed by a tribute to the late Chairman Yunho Lee, a welcome message from Bill Lee,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Korean and foreign guests, the declaration of the new company name and CI, the announcement of Univera Korea's value proposition, the presentation of badges and the launch of new product RegeniCARE K. The event reached its climax with the honoring of high-performing agency heads and Univera Planners. In the second portion of the event featured an energetic and enthusiastic performance by leading Korean singers, including Insuni, Munse Lee and Taejina.

Despite the bad weather and a sudden rainstorm, the sight of UPs cheering with enthusiasm while sharing blankets and battling the rain and cold weather was very touching, and mirrored how they overcome the tough competition they face on the sales front.

Here is the value proposition Univera Korea declared on that day

1. We will continue to take on challenges in new areas for the health of mankind.
2. We will continue to seek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3. We will continue to care for others for the happiness of mankind and of Univera families.



흥겨운 UP들
Excited Univera Planners



미국현지법인 블루 다이아몬드들도 함께 한 뜻깊은 자리

A significant occasion the Blue Diamonds from Oasis took part in



태진아, 인순이, 이문세 축하 공연 Congratulatory performance by Taejina & Insuni & Munse Lee

1 ‘유니베스틴·K’ 우수성 입증 임상실험 결과 발표
의학학술대회에서 에코넷 관계사인 유니젠이 개발한 ‘유니베스틴·K’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업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5월 21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열린 대한 임상건 강증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 원 김영식(가정의학과)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임상시 험 사례’를 주제로 유니베스틴·K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김교수는 관절통 증상이 있 는 139명을 위약군 46명, 유니베스틴·K군 46명, 글 루코사민군 47명으로 나눠 실시한 임상시험결과 ‘위 약군이 28.26%, 유니베스틴·K가 47.83%, 글루코사 민이 27.66%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을 받았으며, 유 니베스틴·K만이 무릎 관절의 경직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시중에 많이 유통되 고 있는 글루코사민은 위약과 차이가 없어 무릎 관절 의 경직성 개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번 임상시험결과와 발표는 유니베스틴·K의 우수성이 공인 학술대회를 통해 확인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글 루코사민 소재와의 국내 최초의 비교임상시험을 통 해 상대적 우수성이 검증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본 학술대회에는 유니젠생명과학연구소 우성식 총괄상 무 겸 연구소장도 발표자로 초청되어 식약청 건강기 능식품규격과 권오란 팀장, 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 현 국장,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심사위원회 강재현 인 제의대 교수등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평가 및 임상시험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Clinical test results proving the excellence of Univestin·K released

Clinical test results proving the excellence of Univestin·K, developed by ECONET affiliate Unigen Korea, were released at a medical conference and are drawing attention from the industry

At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held at Asan Medical Center in Seoul on May 21, Prof. Youngsik Kim of th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family medicine) released the results of clinical trials of Univestin K as a “Functional Health Supplement Clinical Test Example.” In his presentation, Prof. Kim stated that a clinical trial was conducted with 139 subjects who experience joint discomfort divided into three groups (placebo: 46, Univestin·K: 46, glucosamine: 47). In the trial, 28.26% of the placebo group, 47.83% of the Univestin·K group and 27.66% of the glucosamine group reported a positive effect. The test concluded that only Univestin·K significantly improved the rigidity of knee joints. In addition, glucosamine, which is widely distributed today, showed a similar effect to the placebo, which suggests that it has no effects of improving stiffened knee joints. The release of the clinical test result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excellence of Univestin·K through a certified conference. It is significant that its relative excellence has been verified through Korea’s first comparative clinical trial comparing it to glucosamine. Seongsik Woo, COO/CSO of Unigen R&D, was invited to speak at the conference, and together with Oran Kwon (Health Functional Food Standard Team Leader, KFDA), Seokhyun Huh (Bureau Director,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and Prof. Jaeheon Kang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KFDA Functional Health Food Review Committee), he gave a presentation on the assessment of the functionality of and clinical trials involving functional health foods.

2 에코넷 글로벌 CEO 미팅 개최

지난 4월 13~14일 에코넷 센터에서는 전 ECONET 회사의 CEO와 관련임원들이 참가하는 ECONET Global CEO Meeting이 개최되었다. 첫날인 13일 에는 에코넷 기업들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고, 둘째 날인 14일에는 ECONET 회사들의 운영현황 및 재무보고가 있었 다. ECONET Global CEO Meeting은 ECONET 자회사의 CEO들이 모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 로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CONET Global CEO Meeting

The ECONET Global CEO Meeting was held at the ECONET Center on April 13 and 14, and was attended by the CEOs and executives of all ECONET companies. On the first day, various pending issues regarding creating synergy between ECONET companies were discussed. On day two, the operational statu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ECONET companies were presented. The ECONET Global CEO Meeting, which is held regularly twice a year, is an occasion for the CEOs of all ECONET companies to gather together and discuss pending issues.

3 세계건강기능식품산업에서의 B2B전략 세미나 개최

ECONET Global CEO Meeting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2일 에코넷 센터 2층 NABA 교육 센터에서 세계건강기능식품산업의 B2B 전략 세미 나가 열렸다. 유니베라 미국의 Derek Hall 사장이 진행한 이 세미나에는 유니젠 한국, 남양, 유니베라 코리아의 주요 담당자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고객 Lifesytyle의 변화, Wellness 트렌드, B2B 사업의 특 성, B2B 시장의 기회요인 등 다양한 내용을 공유했 다. 기업본부에서는 B2B 전략 토론을 위한 장을 1회 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정기적인 활동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Seminar on the B2B Strategy in the Global Functional Health Food and Supplement Industry

On April 12, one day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ECONET Global CEO Meeting, a seminar

on the B2B strategy in the global health functional food and supplement industry was held at the NABA Training Center on the 2nd floor of the ECONET Center. About 30 representatives from Unigen Korea, Namyang and Univera Korea attended the seminar led by Derek Hall, President and CEO of Univera USA. The participants exchanged views on various topics, including the changing lifestyles of customers, wellness trends, the characteristics of B2B business and opportunities in the B2B market. The corporate headquarters plans to promote the forum on B2B strategy not merely as a one-time event but as a regular, ongoing activity.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4 ‘유니베라를 만나보세요’ 이벤트 진행중



남양알로에가 새로 운 사명 유니베라로 변경되면서, 보다 많 은 고객들에게 친숙 하게 다가가기 위한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벤트 내용은 ‘OOOO는 세계인과 함께 하는 남양 알로에의 새이름입니다.’에서 OOOO를 맞추는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응모권은 더욱 많은 일반 고객들의 참여를 위해 대리점에서 교부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이벤트 기간 : 2006년 5월 1일 ~ 6월 23일

•당첨자 발표 : 2006년 7월 중순

한편 홈페이지에서도 ‘유니베라 CF 틀린그림 맞추기’, ‘내가 만드는 유니베라’라는 형태로 온라인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임이벤트가 함께 진행중 이다.

“Discover Univera” Event Underway

Following the change of Namyang Aloe’s name to Univera Korea, an event to familiarize customers with the new name is now underway. Participants must correctly fill in the blank in the sentence “OOOO is the new name of Namyang Aloe spreading worldwide.” Entry forms are available at sales agencies in order to encourage participation among offline customers.

- Offline event period : May 1 ~ June 23, 2006
- Announcement of winners : mid - July 2006

Meanwhile, on the company website, online game events including Univera CF Pictorial Puzzle and Create a Univera Logo are underway to promote participation among online customers.

5 다시 열리는 수요일 음악회



2005년 시작된 수요일음악회가 5월부터 새롭게 시작되어,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열리게 된다. 재즈, 관현악 밴드, 아카펠라 등의 멋진 음악으로 장식했던 2005년에 이어 2006년의 수요일음악회는 지난 5월 17일 국내 전자바이올린 연주의 대표주자 유진 박과 천재 피아니스트 진보라의 챔콘서트로 활기찬 문을 열었다.

이날 공연에서 선발 연주자로 나선 피아니스트 진보라씨는 한 어린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진보라씨는 피아노 연주도중 다섯살 정도의 여자아이의 불러내 즉흥적인 무대를 연출했는데, 한 손으로는 반주를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손으로 직접 건반을 두드리며 멋진 공연을

연출했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유진 박은 폭발적인 연주와 무대매너로 객석을 휘어잡았다. 공연도중 코믹한 연주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객석 깊숙히 들어와 관객들의 한가운데에서 연주하는 등 관객들과 호응하며 모두가 열광하는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다.

짧은 봄을 아쉬워하는 5월의 어느날 저녁에 펼쳐진 환상적인 연주는 상쾌한 봄바람과 함께 성수동 주민들의 가슴 속에 유니베라와 함께하는 멋진 추억을 그려 넣었다.

Wednesday Music Concert Resumes



The Wednesday Music Concert,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2005, resumed in May and will be held on the third Wednesday of each month until October. Following the wonderful performances bedecked with jazz, orchestral music and a cappella in 2005, the first Wednesday Music Concert in 2006 kicked off on May 17 with exciting performances by Eugene Park, Korea’s leading electronic violin artist, and piano prodigy Bora Jin.

Bora Jin, the first performer on stage, created an unforgettable memory for a young girl in the audience. During her piano performance, she invited a girl of about five up to the stage and improvised a performance. While playing the piano with one hand, she held the girl’s hand with the other and helped the girl perform a piece. The second artist of the evening was Eugene Park, who captivated the audience with his explosive

performance and stage presence. During his performance, he made some comical gestures and also strolled deep into the audience while playing the violin, winning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the audience and delivering a passionate performance.

Paired with a refreshing spring breeze, the fantastic performance staged one evening in May, when everybody is savoring the short-lived spring while they can, etched the wonderful memories offered by Univera Korea in the hearts of Seong-dong residents.

(주)남양 / Namyang Company

6 유니베라 미국 “블루다이아몬드” 방문

남양알로에 창립 30주년 축하차 한국에 온 유니베라 미국 블루다이아몬드들이 4월 18일 남양을 방문하여 현장 액상 자동라인 등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진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겼다. 블루다이아몬드들은 뽀얀 속살을 드러내며 막 피어난 목련과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다’는 환호성을 연발했다. 남양의 직원들은 본사에 처음 방문한 유니베라 미국의 귀한 에코넷 가족을 기쁘게 맞았고, 방문단의 고맙단 인사에 그날의 노고를 잊었다.

Univera USA Blue Diamonds Visit Namyang

Univera USA’s Blue Diamonds, who came to Korea to celebrate Namyang Aloe’s 30th anniversary, visited Namyang on April 18. The visitors toured production facilities, including automatic liquid processing lines, and fully indulged in the exquisite nature of Jincheon. The Blue Diamonds cheered at the sight of new magnolia blooms bathed in spring sunlight and repeatedly exclaimed, “Beautiful!” The staff of Namyang extended the warmest welcome to the visitors from Univera USA, who are visiting the

company for the first time. The apparent deep appreciation of the visitors made all the troubles the staff went to worthwhile.

7 4/23일 덕산체육대회 참석



지난 4월23일 남양은 진천군내 사업체들 간의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진천군내 사업체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남양의 직원 40여명이 참석하여 축구, 농구, 배구, 족구, 씨름, 계주 등의 경기를 펼쳤다. 참석자들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힘들다고 하면서도 즐거워했다. 남양은 씨름과 배구에서 우승했고, 종합성적 3위에 올랐다.

Namyang Takes Part in Deoksan Sports Day on April 23

On April 23, Namyang participated in a sports day for businesses located in Jincheon County. This is an annual event organized to promote friendship among companies doing business in Jincheon. This year, about 40 Namyang staff members took part and played a variety of games, including soccer, basketball, volleyball, kickball, ssireum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and relays. Although it was physically challenging since participants have not played these games in a long time, they still enjoyed every moment. Namyang triumphed in ssireum and volleyball and ranked third overall in the event.

8 4/28일 전 직원 “한마음 대행진” 속리산 등반



지난 4월 28일 남양 전직원이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속리산 정상 문장대를 오르는 ‘한마음대행진’을 개최했다. 산을 오르면서 2코스에서 미션 수행이 있었는데, 사전에 ECONET의 철학, 남양의 미션, 남양의 인재상을 암기케 하고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다음 코스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힘든 가운데 모두들 열심히 참여하여 전 사원이 무사히 문장대에 올랐다. 또한 화합이 잘된 조를 뽑아 1~3등까지 시상했다.

Entire Staff Participates in Hanmaeum Grand March at Songni Mountain on April 28

The Hanmaeum Grand March took place on April 28, and all the staff of Namyang hiked up to Munjangdae, the summit of Songni located in Sa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During their ascent, the hikers were assigned with a mission. They had to memorize the philosophy of ECONET and the mission and desired talent profile of Namyang and pass the test in order to move on to the next course. Thanks to their hard work, all staff members were able to reach Munjangdae without fail. The three teams that demonstrated the most outstanding teamwork were awarded prizes.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9 김동식 신임 대표이사 취임



지난 4월3일 유니젠 대표이사의 이·취임식이 유니젠 생명과학연구소의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신임 김동식 사장은 4월 1일부로 주식회사 유니젠의 신임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향후 유니젠의 천연물 세계시장 진출의 대임을 맡게 되었다. 김동식 신임사장은 유니젠 취임이전까지 오랫동안 IT마케팅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그동안 유니젠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을 일궈온 조태형 전임 대표이사는 에코넷기업본부 총괄 CTO로 자리를 옮겨 에코넷의 종합적인 연구체계를 진두 지휘하게 됐다.

김동식 신임대표이사의 주요약력은 아래와 같다.

- 04년 ~ 06년 멘토코리아 / 지사장
- 99년 ~ 03년 Co Ware, Inc. (미국 San Jose) / VP and General Manager / Asia Pacific Operations
- 93년 ~ 98년 Cadence-Korea / President & Country Manager
- 90년 ~ 92년 HP-Korea / Marketing Manager
- 81년 ~ 90년 Hp Korea / Sales 관련 업무 담당

Dongsik Kim Takes Office as New President and CEO

A ceremony marking the departure of the former Unigen Korea CEO and the inauguration of a new one was held in the main auditorium of the Unigen Korea R&D Center on April 3. Dongsik Kim took office as the new president and CEO of

Unigen Korea on April 1. He is assigned with the grand mission of expanding Unigen Korea in the global natural product market. Before assuming the new post, Dongsik served in IT marketing field for many years. Tae-hyeong Cho, the former CEO who has laid and built up a firm foundation for Unigen Korea to date, will be taking on a new post as CTO of ECONET Corporate Headquarters and will orchestrate the overall ECONET research system.

The key profile of new CEO Dongsik Kim is as follows.

- '04 ~ '06 Mentor Korea/General Manager
- '99 ~ '03 Co Ware, Inc. (San Jose, California)/ VP and General Manager / Asia Pacific Operations
- '93 ~ '98 Cadence Korea / President & National Manager
- '90 ~ '92 HP-Korea / Marketing Manager
- '81 ~ '90 HP Korea / Sales Department

10 유니젠 Global Summit



지난 5월 8~10일까지 제 8차 UNIGEN Global Summit이 UNIGEN-Korea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개최 되었다. 매년 두 번씩 개최되는 UNIGEN Global Summit은 미국 유니젠과 한국의 유니젠이 연구 및 마케팅 분야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올 해에는 더욱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는 Summit의 모습을보여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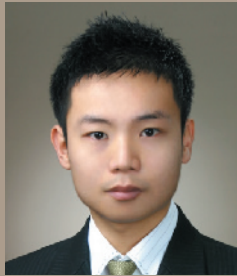
있다. 유니젠 한국에서는 김동식 사장과 우성식 총괄상무/연구소장을 비롯 모든 연구진들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에서는 Unigen 미국에서는 Regan Miles 사장과 Qi Jia 박사 및 연구진들 그리고 유니베라 USA 와 Aloecorp의 연구진도 참석하여 아시아 영업 부문과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총회세션 및 개별 미팅이 진행되었다.

Unigen Global Summit

The 8th Unigen Global Summit was held at the Unigen Korea R&D Center May 8 through 10. The Unigen Global Summit, a semi-annual event, is a forum for Unigen Korea and Unigen USA to share their views and hold discussions on key issues and directions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marketing.

This year's event had a greater number of participants, which suggests that the summit's prominence is increasing each year. Unigen Korea was represented by President and CEO Dongsik Kim, Managing Director Seongsik Woo, and all research team members. From ECONET West, President and COO Regan Miles, Dr. Qi Jia and researchers from Univera USA and Aloecorp participated in the meeting. The Summit consisted of a general session and individual meetings on sales in the Asian market and projects currently underway.

신입사원 / New Hire



▲ 김근오 (유니베라 한국)/
서울영업팀 사원
Keuno Kim (Univera Korea)/
Seoul Sales Team



▲ 김용빈 (유니베라 한국)/
제품연구팀 주임연구원
Yongbin Kim (Univera Korea)/
Product Research Team
Associate Researcher



▲ 임도경 (유니베라 한국)/
F&B팀 차장
Dogyeong Lim (Univera Korea)/
F&B Team Deputy Senior
Manager



▲ 추장원 (유니베라 한국)/
경인영업팀 사원
Jangwon Cho (Univera Korea)/
Gyeongin Sales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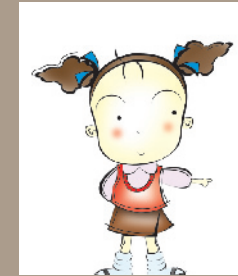
▲ 김경신 (남양)/
ERP P팀 사원
Gyeongshin Kim (Namyang)/
ERP PI Team



▲ 샘 라이트
(유니베라 미국)/ 고객 서비스
Sam Wright (Univera)/ CSR



▲ 톰 트립
(유니베라 미국)/ 고객 서비스
Tom Tripp (Univera)/ CSR



▲ 제니퍼 김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 / 사원
Jennifer Kim (ECONET)/
Executive Assistant

New Hire



▲ 김규홍 (남양)/
생산기술팀 사원
Kyuhong Kim (Namyang)/
Production Technology Team



▲ 박동규 (남양)/
생산기술팀 사원
Dongkyu Park (Namyang)/
Production Technology Team



▲ 김동식 (유니젠 한국)/
대표이사
Dongsik Kim (Unigen Korea)/
CEO



▲ 표창민 (유니젠 한국)/
경영전략본부 상무
Changmin Pyo (Unigen Korea)/
Strategy HQ, Managing Director



▲ 김미란 (유니젠 한국)/
천연물연구팀 대리
Miran Kim (Unigen Korea)/
Natural Product Research Team
Assistant Manager

승진 & 부서이동 소개 / Promotions & Transfers

승진자 & 부서이동 소개 / Promotions & Transfers A list of ECONETIANS promoted to manager or higher



◀ 김영환 (유니베라 한국) 부사장 ⇨
공동대표이사 사장
Youngwhan Kim,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EO, Univera Korea ⇨
President and CEO



◀ 정찬수 (유니베라 한국) 상무이사 ⇨
부사장실 부사장
Chansoo Chung, Vice President,
Univera Korea ⇨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OO



▲ 라모나 챔블러
(유니베라 미국)/고객 서비스
Ramona Chumbler (Univera)/
CSR



▲ 태미 댄메이어
(유니베라 미국)/ 고객 서비스
Tammy Danmaeyer (Univera)/
CSR



▲ 캐틀린 힐리어리
(유니베라 미국)/ 물류
Katelyn Hilleary (Univera)/
Warehouse



▲ 브레넌 허쉬
(유니베라 미국)/ 고객 서비스
Brennon Hirschi (Univera)/ CSR



▲ 캐리 젤리
(유니베라 미국)/ 고객 서비스
Carrie Jelle (Univera)/ CSR



◀ 조복희 (유니베라 한국)
마케팅본부 부장 ⇨ 마케팅본부 상무보 B
Clara Cho, General Manager,
Marketing HQ, Univera Korea ⇨
Associate Managing Director B



◀ 김령태 (남양) 부사장실 부사장 ⇨
사장실 대표이사사장
Younglae Kim, Executive Vice
President, Namyang ⇨ President



▲ 루이 링크
(유니베라 미국)/ 물류
Louie Link (Univera)/
Warehouse



▲ 스캇 멘데즈
(유니베라 미국)/ 고객 서비스
Scott Mendez (Univera)/ CSR



▲ 블레이크 메이어스
(유니베라 미국)/ 고객 서비스
Blake Meyers (Univera)/ CSR



▲ 레아 윈클러
(유니베라 미국)/ 경영 관리실
Lea Winkler (Univera)/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 리사 스테이저 (유니베라 미국)/
제품개발 코디네이터
Lisa Staiger (Univera)/ Product
Development Coordinator



◀ 윤경수 (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상무 ⇨
에코넷기업본부 부사장
K.S. Yoon, Vice President, ECONET Corporate
Center ⇨ Executive Vice President



◀ 심호영 (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이사 ⇨
에코넷기업본부 재무총괄 상무보A
John Sim, Managing Director B,
ECONET Corporate Center ⇨
Managing Director A and CFO



◀ 이재은 (유니베라 한국) 경영전략본부 이사대우 ⇨
에코넷기업본부 상무보 A
Jaeun Lee, Managing Director B, Strategy HQ,
Univera Korea ⇨ Managing Director A &
ECONET Corporate Center



◀ 김미자 에코넷기업본부 부장 ⇨
에코넷기업본부 상무보B
Mija Kim, General Manager, ECONET
Corporate Center ⇨ Managing Director B
and CIO, ECONET Corporate Center



◀ 안계환 (남양) 연구개발실 부장 ⇨
연구개발팀 (실장) 상무보B
Gye-hwan Ahn, General Manager,
R&D Center, Namyang ⇨
Managing Director B



◀ 조태형 (유니젠) 사장실 대표이사사장 ⇨
(남양) 에코넷기업본부 CTO실 사장
Taehyeong Jo, President and CEO,
Unigen Korea ⇨ President and CTO,
ECONET Corporate Center



◀ 광은정 (유니베라 한국) 경영지원팀 대리 ⇨
(남양) 에코넷기업본부 기획인사팀 대리
Eunjeong Kwak,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Support Team, Univera Korea ⇨
Assistant Manager, Planning & HR Team,
ECONET Corporate Center



◀ 브리슨 토마스 (유니베라 미국) 세일즈
코디네이터 ⇨ 다이아몬드 지원팀 주임
Bryson Thomas, Sales Coordinator,
Univera USA ⇨ Diamond Support
Team Supervisor



◀ 애슐리 사카리아 (유니베라 미국)
고객서비스부 I ⇨ 고객 서비스부 II
Ashley Sakaria,
CSR I, Univera USA ⇨ CSR II



◀ 브룩 브론슨 (유니베라 미국)
고객서비스부 I ⇨ 고객 서비스부 II
Brooke Bronson,
CSR I, Univera USA ⇨ CSR II



◀ 애니 랄슨 (유니베라 미국)
고객서비스부 I ⇨ 고객 서비스부 II
Annie Larsen,
CSR I, Univera USA ⇨ CSR II



◀ 제이슨 우드 (유니베라 미국)
영업부 사원 ⇨ 세일즈 코디네이터
Jason Wood, Sales Assistant,
Univera USA ⇨ Sales Coordinator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주)남양 / Namyang

◆ 축하합니다.

- 1) 지난 4월 22일 품질혁신팀 유홍석 대리님의 예쁜 첫째 따님 (유지현) 출산을 축하합니다.
- 2) 지난 4월 30 품질혁신팀 채진희 주임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 1) Congratulations to Hongseok Yoo, assistant manager of the Quality Innovation Team, on the birth of his first daughter (Jihyeon) on April 22, 2006.
- 2) Jinhee Chae, supervisor of the Quality Innovation Team, got married on April 30, 2006.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월 18일 생산기술팀 방창규 반장 아버님이 별세 하셨습니다.
5월 22일 생산기술팀 박원우 반장 배우자 부친께서 별세 하셨습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The father of Changgyu Bang, Manager in Production Technology Team, passed away on May 18, 2006
The father-in-law of Wonwoo Park, Manager in Production Technology Team, passed away on May 22, 2006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축하합니다.

- 지난 4월 23일 생산팀 유재호 팀장님의 딸(유서진)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 Congratulations

- Jaeho Yoo, Production Team leader, held a first birthday party for his daughter Seojin on April 23, 2006.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축하합니다.

- 지난 3월 25일 존 밀러 (물류팀)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 Warehouse Lead John Miller got married in 03/25/2006.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롬 칼니스키 (1948 - 2006) 세일즈 분석/
비즈니스 트레이너 , 유니베라 라이프사이언시스



5월 25일 에코넷 웨스트에서
는 18일 저 세상으로 간 롬 칼
니스키의 삶을 기리는 모임이
있었다. 롬은 유니베라 라이프
사이언시스의 첫 직원 중 하나
이며 회사가 콜로라도에서 레
이시로 옮겨올 때 함께 회사를
따라 이사 올 정도로 유니베라에 헌신적이었다. 그는 영원히 에
코넷 웨스트의 일부로 남을 것이면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 Rob Kalnitsky (1948 - 2006) Sales Analyst/
Business Trainer, Univera LifeSciences

On May 25th, the ECONET WEST family celebrated the
life of Rob Kalnitsky, a beloved employee and friend, who
passed away on May 18th . Rob was one of the first

employees of Univera LifeSciences™ . He was dedicated to
Univera as far as to move with the company from Colorado,
when the company relocated to our new facility in Lacey,
Washington. He will always be a part of the ECONET
WEST family and will forever live on in our hearts.

◆ 정정합니다.

지난 에코넷웨이 Vol.013/April,2006호 경조사 오아시스
/Oasis 에릭밀러(고객관리담당)과 기타 테렐(물류 책임자)의 아
기 사진이 바뀌었음을 정정합니다.

에코넷웨이 편집실!

◆ Corrections

We regret that in the last issue of ECONET Way (Vol.
013/April 2006), the photos of the baby of Eric Miller
(CSR, Oasis) and of Quita Terrel (Distribution Coordinator,
Oasis) were switched. Please accept our apologies.

ECONET Way Editor's Desk

생일자 소식 06 ~ 07

Birthday in June & July

Happy Birthday

남양 / Namyang



◆ (6/1) 천창식
Changsik Cheon



◆ (6/1) 김정은
Jeongeun Kim



◆ (6/3) 유성금
Seonggeum Yoo



◆ (6/3) 주혜련
Hyeryeon Joo



◆ (6/12) 박정선
Jeongseon Park



◆ (6/20) 조정임
Jeongim Cho



◆ (6/21) 위영숙
Youngsook Wee



◆ (6/24) 이추월
Choowol Lee



◆ (6/28) 이병훈
Bill Lee



◆ (7/1) 박미애
Miae Park



◆ (7/11) 김명옥
Myeongok Kim



◆ (7/11) 유경자
Gyeongja Yoo



◆ (7/18) 전영숙
Yeongsook Jeon



◆ (7/20) 공승식
Seungsik Gong



◆ (7/21) 양순예
Soonye Yang



◆ (7/26) 김진희
Jinhee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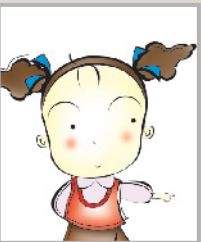
◆ (7/29) 유후재
Hoojae Yoo



◆ (7/31) 김진영
Jinyoung Kim



◆ (6/1) 김현욱
Hyunwook Kim



◆ (6/5) 김기자
Kija Kim



◆ (6/7) 이경원
Gyeongwon Lee



◆ (6,11) 김효재
Hyojae Kim



◆ (6,21) 안성민
Seongmin Ahn



◆ (6,17) 백재열
Jaeyeol Paek



◆ (6/22) 이현주
Hyunjoo Lee



◆ (6/23) 김근오
keuno Kim



◆ (7/1) 박정아
Jeongah Park



◆ (7/7) 이원석
Wonseok Lee

Happy Birthday



◆ (7/15) 조은철
Euncheol Cho



◆ (7/17) 이 룰
Ryul Lee



◆ (7/18) 김소연
Soyeon Kim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



◆ (6/11) 도선길
Seongil Do



◆ (7/18) 장미라
Mira Chang



◆ (6/20) 루이 링크
Louie Link



◆ (6/29) 애니 랄슨
Annie Larsen



◆ (7/1) 스티븐 처니스케
Stephen Cherniske



◆ (7/31) 스카티 쿠푸스
Scotty Kufus

유니젠 미국
Unigen USA

➔



◆ (6/19) 리건 마일스
Regan Miles



◆ (7/19) 민병국
Byeongkook Min



◆ (7/26) 이강우
Kangwoo Lee

알로콧
Aloecorp

➔



◆ (7/11) 샤논 존슨
Shannon Jones



◆ (7/13) 신디아 로스나우
Cynthia Rosenow



◆ (6/28) 환 살다냐
Juan Saldana



◆ (6/29) 웨웬 마
Wenwen Ma



◆ (7/2) 테리 오 라일리
Terry O'Reily



◆ (7/8) 정미정
Mijeong Jeong



◆ (7/17) 줄리아 후
Julia Foo

유니젠 러시아
Unigen Russia

➔



◆ (6/2) 라드지온 비야체슬라브 페트로비치
Radzion Vyacheslav Petrovich



◆ (7/20) 에스메랄다 예니구에즈
Esmeralda Yniguez



◆ (7/28) 조 쿼노네스
Joe Qulnones

힐탑가든
Hilltop Garden

➔



◆ (6/16) 마크 사이몬
Mark Simon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
ECONET, Inc.

➔



◆ (6/10) 성환용
HY Sung



◆ (6/3) 미트루쉬노브 발렌타인 사베리예비치
Mitrushov Valentine Savelyevich



◆ (6/9) 구원모
Wonmo Koo



◆ (6/19) 포토포로바 올가 아나톨리에브나
Portopopova Olga Anatolrievna



◆ (6/11) 데릭 넬슨
Derek Nelson



◆ (7/1) 데이빗 프레드릭
David Frederick

유니베라 미국
Univera USA

➔



◆ (6/2) 낸시 포피에라지크
Nancy Popielarczyk



◆ (6/6) 리사 스테이거
Lisa Staiger



◆ (6/12) 타라 모시스
Tara Moses

Happy Birthday

에코네시안들의 자유사진전 콘테스트 당첨자 안내!



최우수상 켈시의 첫번째 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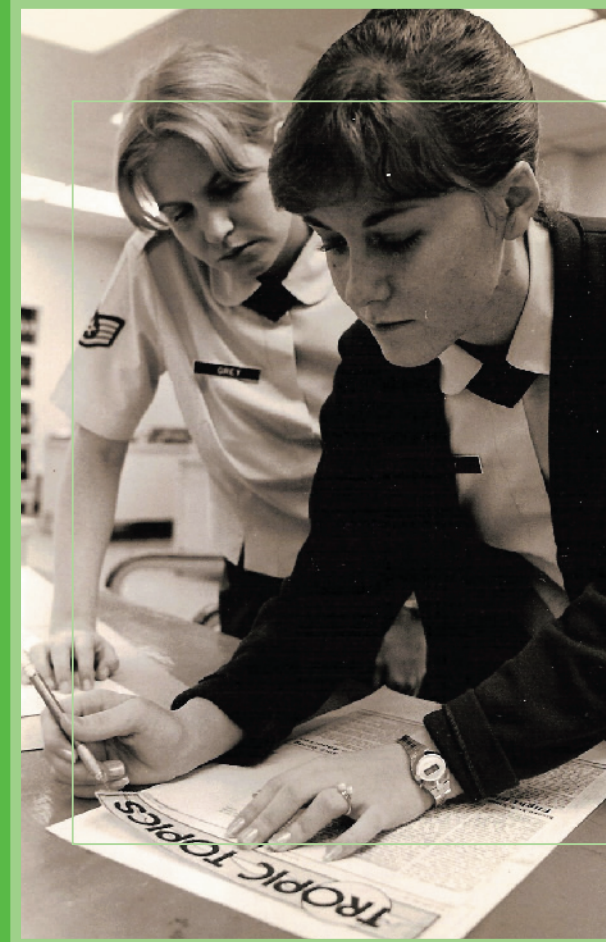
내가 이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켈시가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사진 속의 눈이 나를 사로 잡기 때문이다. 꼭 내 영혼을 들여다 보고 있는 듯 하다. 예쁜 케이크였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진을 하나씩 다 찍었지만 (나는 셋을 찍었다)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든다. 제니퍼 베인터 (회계 담당, 유니베라 라이프사이언스) / 10만원 상품권

First Prize Winner Kelci on her 1st Birthday!!

*I love this picture not just because Kelci is my daughter
but when I look at it I see her eyes standing out at me.
It looks like she is staring into my soul.
The cake is cute and everyone who has kids has this picture
(I actually have 3) but this one just stood out for me.*

Univera Lifesciences Accounting Clerk, Jennifer Bainter / A 100,000 - won gift certificate

The winners of the June photo contest!



우수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역시 아름답습니다. 축하합니다
에코넷웨이 편집실!

캐시 마크햄, 유니젠 미국 사원 / 5만원 상품권

Second Prize Winner

*The picture of you working hard is always beautiful.
Congratulations! ECONET Way Editor's Desk!*

Kathy Markham,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Unigen USA
/ A 50,000 - won gift certificate



우수상

2001년 5월 Colorado에서 함께한 Call Center 직원들의 추억이 담긴 의미있는 사진이군요..

축하합니다. 에코넷웨이 편집실!

알로콧 뎀 글로버 / 5만원 상품권

Second Prize Winner

*This is a very significant photo of call center
representatives working in the Colorado Office, taken in
May 2001.*

Congratulations! ECONET Way Editor's Desk!

Deb Grover, Aloecorp / A 50,000 - won gift certificate

그의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썬크림 1개씩을 증정합니다.



New Jersey NETS팀 치어리더와 황홀한 순간

유니베라 한국 마케팅기획팀 노준호 대리

A thrilling moment with New Jersey Nets cheerleaders

Joonho Noh, Assistant Manger, Marketing Planning Team, Univera Korea



즐거운 바비큐 파티~

유니베라 한국 고객상담실 박정아 팀장

A fun time at a barbecue party

Jeongah Park, Customer Service Team Leader, Univera Korea

Photo Contest

The winners of the June photo contest!



개그맨 신동엽과 찰칵!!

유니베라 교육팀 조인영 주임

A snapshot with Dongyeob Shin (a famous comedian)!!

Inyoung Cho, Supervisor, Training Team, Univera Korea



내가 만든 코스쥬 예쁘지요??

유니베라 한국 고객상담실 정현정 주임

My homemade corsage - isn't it beautiful?

Hyunjeong Chung,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Univera Korea



30주년 기념 체육복을 입고 모델처럼 포즈한컷!

유니베라 한국 고객상담실 신은미 대리

Posing like models in uniforms for the 30th anniversary event

Eunmi Shin,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Univera Korea

◆ 2006년 8월호에는 에코네시안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에코넷 스마일 사진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For the **August 2006 photo contest**, we are looking for **ECONET Smile photos**. Please send in pictures of **ECONETIANs** with the most beautiful smiles.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6월호 퀴즈 & 2006 4월호 당첨자 발표

지난 호 퀴즈정답

- 1) 첫째, 우리는 남양알로에농산 사원이 된 궁지와 자부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 2) 둘째로, 우리는 왕성한 개척정신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 ▶ 지난 호 퀴즈 당첨자 (\$50에 상당하는 상품)
 - 김석원 - 에코넷웨스트 홀딩스 전략기획부

- ▶ 지난 4월호 베스트 원고상! 상금으로 200,000원(\$200)이 수여됩니다.

유니젠 러시아 총무팀 - 광활한 영토에서 꿈을 일구는 만능 일꾼들의 집합소

이전에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던 유니젠 러시아의 이야기와 직원들이 광활한 영토에서 꿈을 일궈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6월호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74page에 있습니다.

- ▶ 2006년 8월호에는 에코네시안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에코넷 스마일 사진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수상 : 100,000원 상품권 (1명), • 우수상 : 50,000원 상품권 (2명)

6월호 ECONET Way 퀴즈!

글로벌 천연물기업 유니베라의 제1호 제품인 ()는 관절기능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이 제품은 천연식물 황금(黃芩, Golden root)과 아선약 추출물을 혼합해 개발한 ()를 주성분으로 한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위 정답의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April Quiz and Winners of the February Quiz

Answers to the April 2006 quiz :

- 1) First, we should firmly maintain our pride and dignity as the staff of Namyang Aloe Agricultural Industrial Company.
- 2) Second, we should have an enthusiastic pioneering spirit.

- ▶ Winners of the February Quiz gift certificate worth 50,000 won (\$50)
Greg Kim (Manager, Strategy & Planning, ECONET Inc.)

- ▶ Winner of the February Best Article Contest! (A cash prize of 200,000 won (\$200) will be awarded)

Unigen Russia General Affairs Team - A Cluster of Talented Manpower Nurturing Dreams on a Broad Expanse of Soil

The article did a good job of telling the stories of Unigen Russia, which has not received much coverage in the past, and vividly depicted how ECONETIANs in Russia are nurturing their dreams in that vast l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continued participation.

- ▶ The winners of the June photo contest are announced on page 74

- ▶ For the August 2006 photo contest, we are looking for ECONET Smile photos. Please send in pictures of ECONETIANs with the most beautiful smiles.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 First Prize: A 100,000-won gift certificate (1 winner)
- Second Prize: A 50,000-won gift certificate (2 winners)

Quiz for the August issue of ECONET Way

(), the first product by global natural product company Univera, is a functional health supplement for improving joint function. The main ingredient of the product is (), a substance developed by combining Baikal skullcap (golden root) and gambir extracts.

Winners will receive the product in the answer as their prizes.

-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SeanL@econetwest.com)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함께 만드는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감명깊게 읽은 책, 기억에 남는 공연, 좋은 추억이 된 여행, 자신만의 에세이 등 자유롭게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

1.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2. '에코넷웨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3. '에코넷웨이'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제안을 적어 주십시오.
4. 참여하고 싶은 코너나 추천하고 싶은 사주를 적어주세요.

Let's join the ECONET Way

ECONET Way is awaiting your participation.

Please contribute articles on any topic, such as your favorite book,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 memorable trip or a personal essay.

Your contribution would be deeply appreciated. ⇨ SeanL@econetwest.com

1. Which article did you find most interesting or useful in this month's issue?
2. What would you like to read in future issues of ECONET Way?
3. Please submit any comments or suggestions you have for ECONET Way.
4. Kindly suggest a section to which you'd like to contribute or a colleague you'd like to recommend.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주)남양 / Namyang Company

에코넷기업본부 오경아 대리/ 편집장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ECONET Corporate Conter, / Korea / Editor-in-Chief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최순미 대리/ 기자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Managemnet Support Office / Korea / Reporter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전영숙/ 기자 et2388@namyangglobal.com
You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 Korea / Reporter

(주)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마케팅본부 고객지원팀 박정아 팀장/ 기자 aloever@univera.com
Jeong Ah Park, Customer satisfaction Team Manager, Marketing, / Korea / Reporter

교육부 교육기획팀 송은주 대리/ 기자 seunjoo@daum.net
Natalie Song, Assistant Manager / Education Planning Team/Education devision / Korea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마케팅개발관리 최재영 차장/ 기자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Marketing, Unigen,Inc

경영지원실 재정인사 장미라/ 기자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Staff, Administration , Unigen,Inc

미국 / USA

알로콧 생산관리 김수겸 상무/ 기자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COO of Aloecorp Operations

유니베라 미국 손병일 차장/ 기자 ByungS@econetwest.com
Byung Sohn, Financial Services Manager / Univera / Reporter

유니젠 미국 신상현 과장/ 기자 Sangs@upil.com
Sang H. Shin, Account Manager, UPI / Reporter

에코넷 웨스트 홀딩스 이세현/ 기자 SeanL@econetwest.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ECONET, Inc. / Reporter

중국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하이난 알로콧 & 남양 총경리 비서 송운섭/ 기자 yoonsup21@hanmail.net
Yoonsup Song, Secretary of Hainan Aloecorp & Namyang / China / Reporter

유니젠 러시아 / Unigen-Russia

유니젠 러시아 허영문/ 기자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UNIGEN-RUSSIA Company / Russia



(주)남양 / Namyang Company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주)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univera.com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ECONET,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universalifesciences.com

유니젠 미국 / Unigen Phmaceuticl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콧(생산) / Aloecorp Inc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콧(영업) / Aloecorp Inc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중국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Russia

3rd Floor, Aleutuskaya 14str.
Bladivostok, Primory, Russia
Tel : 7-4232-30-10-66, Fax : 7-4232-30-10-64



Ingredients as unique as your fingerprint

Looking to set your products apart in the marketplace? Searching for proprietary ingredients with intellectual property? Unigen is your one-stop source for one-of-a-kind products to give you that competitive edge. A premier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y, Unigen has an extensive worldwide collection of over 5,000 medicinal plants for use in the development of their proprietary compounds. And every novel ingredient from Unigen is backed with sound patents and proprietary science to guarantee safety, efficacy, quality, speed-to-market and, of course, products that stand out in the crowd. It's easy to put your finger on the leading industry source of high quality, novel compounds. **Just call Unigen.**

unigenTM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360-486-8200
www.unigenpharma.com